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 코스닥		
5089.14 (-74.43)	1080.77 (-27.64)		
↑ 금리 (국고채 5년)	↓ 환율 (원·달러)		
3.233 (+0.029)	1463.00 (-6.00)		



삼성, 설 이후 HBM4 세계 첫 양산

엔비디아 ‘베라 루빈’에
삼성전자 HBM4 탑재
내달 GTC2026서 공개
SK와 주도권 경쟁 가속

삼성전자가 설 연휴 이후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출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차세대 AI 메모리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동시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

사의 HBM4 주도권 경쟁도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4의 양산 출하 시기를 이번 설 연휴 이후 이르면 이달 셋째 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품질 테스트를 비교적 이른 시점에 통과하며 구매주문(PO)을 받았고 ‘베라 루빈’ 출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일정을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고객사 완제품 모듈 테스트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HBM4

샘플 물량도 이번 PO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엔비디아는 내달 열리는 자사 기술 콘퍼런스 ‘GTC 2026’에서 삼성전자 HBM4가 탑재된 베라 루빈을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차세대 HBM4가 양산 출하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또한 삼성전자 HBM4는 성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때부터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JEDEC) 표준을 능가하는 최고 성능을 목표로 정했다. 이에 이번 HBM4에 1c(10나노급 6

세대) D램과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앞서 글로벌 HBM 시장 1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가 이미 HBM4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정과의 시너지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 또한 HBM4에 탑재될 10나노급 5세대 D램 양산에 속도를 내며 물량 공급에 발 빠르게 대응하려는 분위기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5일(현지시간) 열린 갈라 디너 행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뒷줄 오른쪽 네번째)이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 및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앞줄 오른쪽 일곱번째), JD 밴스 미국 부통령(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등 함께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 기업인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대통령실 홈페이지

밀라노 간 이재용, 2년 만에 ‘스포츠 외교’

IOC 주관 갈라 디너 참석
동계올림픽 참가 3800명
갤럭시Z폴립7 에디션 지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공식 행사에 참석해 2년 만에 스포츠 외교를 재개했다.

이재용 회장은 6일(현지시간) 개막한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 글로벌 기업가들과 교류하며 스포츠 외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이재용 회장은 올림픽 개막을 기념해 5일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관 갈라 디너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한 IOC 최상위 후원사(TOP)인 삼성전자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커스티 코번트리 IOC 위원장,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뿐 아니라 JD 밴스 미국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빌럼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타미姆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카롤 나브로키 폴란드 대통령, 토마스 슈요크 헝가리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석했다.

글로벌 기업가로는 리동성 TCL 회장, 올리버 바테 알리안츠 회장, 레이널드 애슐리만 오메가 CEO, 미셸 두케리스 엔하이저 부시 인베스트 회장, 가오펬이 명유 회장,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 사일리시 예유리 카르 프록터앤갬벨 CEO, 라이언 맥이너니 비자 CEO, 조셉 우쿠조글루 딜로이트 CEO,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회장 등이 참

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IOC 갈라 디너는 단순한 사고 모임을 넘어 글로벌 정세와 비즈니스 현안이 논의되는 물밑 외교의 장”이라며 “이재용 회장의 참석은 삼성전자의 글로벌 위상은 물론 한국 스포츠 외교 역량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용 회장은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때도 현지를 찾아 스포츠 외교를 이끈 바 있다. 삼성은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부터 대를 이어 변함없이 올림픽을 후원해 왔으며 2028년 미국 LA 올림픽까지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삼성이 올림픽 후원을 이어가는 것은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뜻을 계승해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사의 올림픽 후원은 단순한 로고 노출을 넘어, 스포츠의 도전 정신과 삼성사의 혁신 이미지를 결합한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 마케팅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이번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스포츠과학원과 손잡고 갤럭시워치가 기록한 선수들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약 90개국 3800여명의 선수들에게 ‘갤럭시Z폴립7’을 지급했다.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직접 셀카를 촬영하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은 이번에도 이어진다.

/양성운 기자 ysw@

社告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빗썸 “오지급 손실 전액 보상”

2000원→2000BTC로 지급
약 1900억 규모 오지급 사고
손실액 10억+10% 추가보상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손실 규모를 파악해 전면 보상에 나섰다. 빗썸은 고객 손실액이 약 10억원이라고 밝혔다. 빗썸은 시세 대비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사고 시간대(오후 7시30~45분)에 비트코인을 저가매도한 고객이 대상이며,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6일 오후 7시 이벤트 참여 보상을 지급하는 중에 1인당 2000원 지급이 1인당 2000BTC(약 19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는 오지급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만에 해당 계정에 대해 거래 및 출금 차단 조치 이후 회수에 나

섰으나, 일부 회원이 해당 비트코인을 매각하면서 시장 내에서 일시적인 가격 급락이 발생했다.

빗썸이 지난 7일 내놓은 공지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오지급된 비트코인 규모는 약 62만BTC다. 전체 오지급분량의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는 회수됐으며, 시장에서 매도된 1788개 중 93%는 회수됐다. 사고 발생 시기 매도·매수된 분량 가운데 외부 전송된 분량은 없었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직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중인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 홈페이지에는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결제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탐지 및 자동차단 시스템 강화 등 향후 프로세스 개선 방안 및 재발 방지 방안을 공지했다.

또한 빗썸은 사고 발생 직후 시장가 급락이 발생한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까지 발생한 ‘팩닉셀’로 피해를 입은 고객 손해분을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여당 ‘김성태 변호인’ 특검 후보 추천에 이 대통령도 불쾌감 표한 것으로 알려져
▲이준석 “정부여당 정책대로면 **李**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불가”
/사진 뉴시스

▲민주, 대한상의 상속세 관련 가짜뉴스 논란에 “엄중 책임 묻어야”
▲2월 하순 **北** 9차 당대회…김정은 메시지 주목

▲靑 “대북 인도 지원 일관되게 이뤄져야…**北** 화답하길 기대”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정치 중…선거 앞두고 한두달짜리”

韓 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 ‘급등락·빚투’ 등 과열 우려도

6일 종가 기준 4799조3607억
국내외 증권사, 코스피 전망 상향
일각에선 ‘과도한 낙관론’ 지적도
신용거래용자 등 곳곳 위험신호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주식시장에 이어 대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가 연일 ‘불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외 증권가의 ‘코스피 전망치 상향 러시’ 등 과도한 낙관론이 투자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4799조36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 103조 6207억9900만 대만달러(4798조6792억원)를 웃돈다.

독일 증시와 격차도 더 벌어졌다. 지난달 일찌감치 한국에 따라잡힌 독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 6일 기준 2조 4015억5000만유로(약4154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세계 주요 증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0.76%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독일 DAX30 지수와 대만 가권지수 수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0.94%와 9.73%에 그쳤다.

하지만 과열 신호도 곳곳에서 확인된



지난 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지수가 표시돼 있다.

다. 코스피,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달 각각 27조8080억원, 14조9040억원으로 전월(14조 4169억원, 11조 4599억원) 대비 1.9배, 1.3배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평균(12조 4002억원, 7조 5476억원)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지수 흐름에 베팅하는 ETF 성적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최근 한 달간 코스닥 지수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역으로 투자하는 인버스 ETF 수익률은 일제히 20%대 하락했다.

일각에선 증권가가 지나치게 낙관론을 펼쳐 빚투를 유발하고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2일(현지 시간)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의 경우 7500으로 대폭 올렸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말 기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4500에서 5200으로 올렸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코스피 12개월 목표가를 5500에서 7300으로 높였다. 정은보 한

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시장과 비교해 보는 관점에서 (코스피) 6000은 넘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장 위험 신호도 계속 커지고 있다. 코스피 200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51.48까지 치솟았다. 이 지수가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면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 ‘빚투’ 열기도 계속이다. 코스피·코스닥 신용거래용자 규모는 지난 5일 기준 30조 7868억원에 달한다. 지난 4일에는 30조9352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들어 전개되는 급등락은 단기 매물 소화, 과열 해소 국면”이라며 “실적 개선 기여도가 높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주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했다. 다만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허정운 기자 zekova@metroseoul.co.kr

5년새 밀가루 36%·설탕 48% 급등

데이터처 장바구니 물가 상승 부추겨

업체 간 담합 의혹을 받는 품목인 밀가루와 설탕의 값이 수년간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시당국은 국내 주요 제분·제당 업체들을 소비자 가격 담합 등 경쟁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2025년 기간 밀가루와 설탕 가격은 각각 35.6%, 47.6% 급등했다. 이 2개 품목은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6.6%를 크게 웃돌았다. 또 전체 가공식품 상승률(24.0%)과 비교해도 상승 폭이 컸다.

아울러 밀가루·설탕이 주 원재료로 쓰이는 국수(51.6%)와 빵(38.0%), 케이크(31.1%), 라면(23.8%), 잼(67.2%), 비스킷(33.6%) 등도 급등세를 보였다.

먹거리 가격은 지난 5년간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밀가루·설탕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땐 치솟고 원재료 가격이 내릴 땐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 밀 가격(톤당 190.5달러)은 2020년(240.7달러)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밀 가격은 2022년에 급등했다가 이후에는 크게 하락했는데, 현

재 국내 밀가루 가격은 5년 전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국내 밀가루는 2022년 28%나 뛰었고 2023년에도 7.2% 올랐다. 국제 설탕(원당) 가격의 경우 5년간 31.2% 올랐는데 국내 가격은 47.6%나 치솟았다. 국제 설탕 가격은 202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안정화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2024년 +12.0%와 2025년 +0.9%를 기록했다.

두 품목의 가격 상승은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의 전반적 상승을 부추겼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지수가 5년간 19.6% 오르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것.

생활물가 구성요소 중 식품 가격이 26.3%나 올랐다. 식품 84개 품목 중 밀가루와 설탕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은 국수, 빵, 아이스크림, 과자,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부터 칼국수, 짜장면, 피자 등 외식메뉴까지 10여 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 기간 중 제분·제당 업체들이 제품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 규모는 밀가루가 5조9913억 원, 설탕이 3조2715억 원으로 추산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정부, 고효율 기기·가전 구매 498억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신청 접수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효율 기기·가전 구매 지원에 올 한 해 동안 총 498억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신청을 각각 전용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398억원, 취약계층 지원에는 100억 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를 신규 설치할 경우 구매비용(부가세 제외)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품목별 지원 한도는 냉난방기·냉장고 각 160만 원, 세탁기·건조기 각 80만 원

이다. 대수 제한은 없지만 사업장당 품목별 한도는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확인서, 기기명판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등 공고문 상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구는 구매비용의 30%, 다자녀·출산가구·대가족 등 나군은 1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만 원이다. 지원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유선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다. 신청은 한국전력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4대 금융그룹, 지난해 순이익 18조 육박

증권·펀드 등 비이자이익 급증
역대최대 실적… 주주환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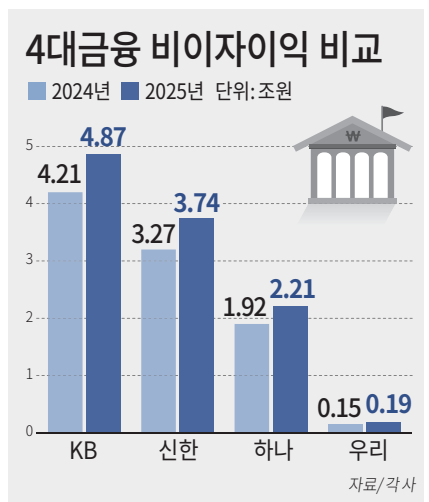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18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둬며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주식시장 활황에 증권, 펀드, 신탁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17% 늘면서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순이익 기준)은 17조95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16조3532억원)보다 9.8% 늘어난 수준이다.

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이 5조8430억원으로 전년(5조780억원) 대비 15.1% 증가하며 ‘리딩 금융’ 자리를 지켰다. 신한금융은 같은 기간 4조4502억원에서 4조9716억원으로 11.7% 성장했고, 하나은행은 4조29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우리은행도 3조1413억원으로 1.8% 늘었다.

주요 금융그룹이 최대실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4대 금융의 이자이익은 42조9340억원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주담대 대출 규제로 인해 평균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자본시장 활황과 맞물려 평균 16.6% 증가했다. 정부의 증



시 부양정책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관련 순이익이 개선된 것이다. 은행 내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부문 수익확대도 실적에 기여했다.

KB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6% 늘어난 4조8721억원을 기록했다. 외환수수료는 3109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 증가했다. 신탁이익도 같은 기간 5381억원으로 25.7% 늘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3조7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4% 증가했다. 수수료 이익이 2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유가증권 관련이익이 1조9132억원으로 같은 기간 13% 늘었다.

하나금융의 비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한 2조2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금융의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전년보다 24.0% 증가했다. 지난해 그룹에 편입한 보험사의 순이익이 더해진 영향이 컸지만 유가증권, 캐피탈, 외환 등에서 수수료 수익도 고르게 늘면서 성장세를 뒷받쳤다.

4대 금융은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올 해도 주주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2025년 결산 배당금을 전년보다 60% 이상 늘리며 단숨에 주주환원율 50%를 넘어섰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주주환원 규모를 키워 4대 금융지주가 일제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배당성향 25% 이상, 배당액 전년 대비 10% 증가)을 맞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얻는 배당소득에 다른 소득을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말한다. 4대 금융지주는 올해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내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증권·보험·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 경쟁력을 강화해온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며 “거래대금 증가와 투자심리 개선이 수수료 및 유가증권 관련 이익 확대에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업계 “HBM 기술경쟁 구도재편 계기 마련”

>> 1면 ‘삼성, 설 이후 HBM4…’서 계속

회사는 1b D램 양산을 위한 웨이퍼 투입을 비롯해 청주 M15x랩 증설, M16랩 공정 전환을 통해 생산 능력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외신 및 IT전문매체 테크포워드는 최근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배제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를 사용할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HBM4 공급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해당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약 70%, 삼성전자가 약 30%의 HBM4 공급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메모리 제조사에 요구한 공격적인 사양 사양이 공급사 선별의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HBM 시장에서 경쟁사 대비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삼성전자가 HBM4 양산을 통해 기술 경쟁 구도를 다시 짜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이번 양산은 특정 기업의 성과라기보다 HBM4 세대부터 공정·설계·패키징 난이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메모리 업체 간 기술 격차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아모레 ‘반등’·LG ‘주춤’… 에이피알, ‘신흥 강자’ 급부상

m-커버스토리

K-뷰티 ‘권력 이동’ 신호

아모레 10년 부진 끝에 반등 가속
작년 매출 4조6232억·영업익 3680억

LG생건 매출 6조3555억에도 이익 ↓
영업익 1707억, 전년비 63% 감소

에이피알 매출 1,5273조·이익률 24%
1월 화장품 수출 10.3억달러 ‘최고’

국내 K뷰티 업계는 전통 강자의 회복과 신흥 강자의 약진으로 새로운 ‘권력 이동’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K뷰티 만형 격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실적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인디브랜드 출신 신에 에이피알은 빠른 외형 확대와 전략적 움직임으로 지속가능한 K뷰티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메디큐브x울타 뷰티(ULTA) 오프라인 매장 전경.

8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최근 10년에 걸친 실적 반등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4조6232억원, 영업이익은 3680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9%, 영업이익은 48% 증가하며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9년 이후 6

년 만의 최대 규모다.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지난 2016년 매출 6조6976억원, 영업이익은 1조828억원까지 찍었으나 이후 2017년 중국의 한화령, 2019년 코로나19 확산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20년대 들어 매출은 6조 원대에서 4조원대원으로 떨어지는 하락세를 겪어 왔다.

반면,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양강 구도를 유지해 온 LG생활건강은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LG생활건강은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6조3555억원, 영업이익은 17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 감소세는 한 자릿수에 그쳐 7%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 축소돼 63% 줄었다.

애경산업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역성장하면서 경쟁 구도에서 밀려났다. 애경산업의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6545억원, 영업이익은 211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4%, 55% 작아졌다.

에이피알은 창립 이후 11년 연속 성장해 사세를 확장하며 인디 뷰티에서 빅 뷰티로 체급을 키웠다.

에이피알의 2025년 연결기준 매출은 1조5273억원, 영업이익은 3654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111%, 영업이익은 198% 늘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률은 24%로 수익성까지 입증해 업계 주목을 받는다.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이익률은 8% 수준이다. 한편,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산업통상부에서 발표된 2026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해 10억3000만 달러다. 역대 1월 화장품 수출 중 최대다. 규모뿐 아니라 증가율은 화장품·농수산식품·생활유아용품·의약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 중 화장품이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미래산업 ‘판’ 바꾼다… 산업부, 혁신도전형 R&D 시동

‘판기술’ 신규 연구테마 3개 확정
인공근육 로봇·PFAS-free 전환
개념 12과제 지원·최대 250억

산업통상부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부는 8일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의 2026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확정하고, 9일부터 연구자 모집을 위한 과제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 R&D 방식에서 벗어나, 실패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전혀 없는 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테마는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 ▲PFAS-free 전환 ▲End-to-End(E2E) 3D 공간지능 등 3개다. 산업·기술·미래학·SF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판기술 그랜드챌린지위원회’가 8차례에 걸친 심층 토론을 통해 도출했다.

판기술 프로젝트는 세부 기술 사양이나 품목을 미리 정하는 기존 R&D와 달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연구주제(테마)’만 제시하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기술 개발

방향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업부는 올해 3개 테마를 시작으로 2027년 3개, 2028년 4개 등 총 10개 연구테마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26억 원(국비 2726억 원)이다.

‘인공근육 전신구동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목표다. 기존 관절형 액추에이터 기반 로봇의 한계를 넘어, 좁은 공간에서도 정밀하고 유연한 작업이 가능한 인공근육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돌봄,

재난 대응 등 생활 밀착형 로봇 활용이 기대된다. ‘PFAS-free 전환’은 유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에 대응해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와 공정을 개발하는 테마다. 그간 각 산업별 PFAS 대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일부 있었으나, 판기술 프로젝트를 통해서 PFAS를 대체할 신규 소재의 탐색과 합성부터 공정 개발, 스케일업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근본적 생산방식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E2E 3D 공간지능’은 사진·영상·음성·

텍스트·전파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하나의 AI 모델이 통합 처리해 상황 예측과 제어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교통, 공정 운영 등에서 ‘인지-판단-제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로, 무사고 도시나 완전 자율 운영 공장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각 테마별로 개념연구 과제 4개씩, 총 1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2억 원을 지원한다. 이후 단계별 경쟁평가를 거쳐 최종 과제에는 최대 250억 원 규모의 대형 R&D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세계의 Buldak 그 완성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K-푸드 대표 주자”

이제 ‘국가가 인정한 브랜드’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겠습니다

Buldak, 세계의 문화가 되다

지난 15년, 삼양식품은 ‘불닭(Buldak)’을 전 세계의 언어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을 휩쓴 수십억 조회수의 불닭 챌린지, 세계의 마트 진열대를 물들인 강렬한 패키지는.

불닭은 이미 세계가 즐기는 K-푸드의 상징이자, 문화입니다.

글로벌 1등을 완성할 마침표

지금 불닭에 필요한 것은 더 멀리, 더 오래 날기 위한 확실한 날개입니다.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는 불닭을 모방제품, 유사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1위 브랜드로 도약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K-컬처의 자산

불닭의 상표권 확보는 한 브랜드의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K-푸드의 수출 길을 넓히고,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불닭은 세계 무대에서 더 높이 도약하고자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이름이 가장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동행**해 주십시오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 온 고유의 브랜드 자산입니다

‘유령 비트코인’ 구조적 허점…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절실

‘빗썸 오지급’ 정치권 파장

與 “‘미보유 자산 장부상 거래 활용
과정서 가격변동·투자자 혼란 발생
원인·책임 소재 명확히 밝혀야”

野 “단순 해프닝 아닌 구조적 결함
뱅크런·시장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 규명하고 근본대책 마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시장 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빗썸은 지난 6일 자체 진행해오던 랜덱스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1인당 2000개(약 1970억원)를 294명에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랜덱스 이벤트는 참여자가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을 지급받는 구조인데, 64조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무한 것 아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뉴시스

냐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당측자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실제 판매하면서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자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개에 불과한데도,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을 두고 ‘유령 비트코인’ 의혹도 일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이른바 ‘유

령 비트코인’ 사태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장부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장부상 거래에 활용되고,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과 투자자 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무엇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거래소의 전

산 오류 하나가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우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장부 거래와 실제 블록체인 자산 간의 실시간 검증 체계와 함께 다중 확인 절차, 인적·시스템 오류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감독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유사 사고 발생 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 및 보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거래소 내부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리고, 투자자의 자산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구조적

결함”이라며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 이동 없이 거래소 내부 장부상의 숫자만 오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거래소는 있지도 않은 코인을 팔아치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뱅크런’과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이라더니, 관리는 아날로그 구멍가게인가. 금융 당국과 빗썸에 묻는다. 실제 보유량을 초과하는 때도 주문이 나갈 때, 시스템은 왜 멈추지 않았나. 30억원이 인출될 때까지 경보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라며 “지금의 코인거래소 제도와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규명하고,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입력 사고’와 빈번히 발생하는 ‘해킹 피해’는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그동안 뒷집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부실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美 ‘親 디지털자산’ 정책 후퇴… 비트코인, 7만달러 하회

비트코인, 3일 연속 6만달러 대 거래
이더리움, 바이낸스도 50%대 하락
美 정부, 디지털자산 추가매입 선 그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친 디지털자산’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디지털자산이 급락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의 전략적 비축을 사실상 중단한다고 언급하면서다.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7만달러 아래로 내렸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심리도 얼어붙었다.

8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10시께 BTC당

6만9188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약 1.08% 하락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은 3일 연속으로 6만달러 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7만달러 아래에 거래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던 지난 2024년 11월이 마지막으로, 작년 10월의 고점 대비 하락 폭은 45%에 달한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디지털자산)의 가격 하락도 거세다.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2100달러 수준에 거래되면서 작년 10월 고점 대비 57.8%의 하락을 기록했고, 3위 바이낸스(BNB)의 낙폭도 52.8%에 육박했다. 작년 10월 4조3000억달러에 달했던 디지털자산 시장의 전체 시총은 2조3700억달러까지 줄어, 약 45%나 감소했다.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이 급락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져서다. 앞서 트럼프가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 대통령’을 자처했던 만큼 그의 취임을 전후해 디지털자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가격도 함께 급락한 것.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 가격 방어를 위해 규제금융을 실시할 수 있는 질문을 받았다. 베센트 장관은 “재무장관으로도, 금융안전감사위원회(FSOC) 의장으로도 그럴 권한이 없다”라면서 “정부는 법적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만 보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기보유한 비트코

인은) 정부가 돈을 내서 산 것이 아니다.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권한도 우리에게 없다”라면서 “더군다나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5년 3월 디지털자산을 정부의 주요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베센트 장관이 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추가 매입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도 얼어붙었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심을 나타내는 ‘공포-탐욕지수’는 8까지 하락(100에 가까울수록 시장 강세)해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집계 이후 최저치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가격이 중·장기 하락으로 진입하는 ‘크립토 윈터(디지털자산 겨울)’에 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은 약 1~2년의 가파른 가격 상승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패턴을 수 차례 반복했다. 이같은 패턴은 주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와 맞물려 반복됐다. 최근 반감기는 지난 2024년 4월이다.

다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크립토 윈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디지털자산 시장조사기관 타이거리서치는 “과거의 크립토 윈터는 시장 내부에서 그 원인이 발생했는데, 최근 흐름은 시장 외부에서 왔다”라며 “(수개월간) ETF 승인과 관세 정책 등 외부 요인이 시장 변동을 주도했다. 디지털자산 업계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외부 환경이 변화한 것으로, ‘크립토 윈터’의 재연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빅터 차 “‘안보 美, 경제 中’ 공식 한계… 중견국과 결합 필요”

〈美 CSIS 소장·조지타운대 석좌교수〉

中 경제적 강압, 체계적·반복적
무역 무기화 시도 사전 차단해야

관세와 통상 정책이 순수한 경제 수단을 넘어 외교·안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되면서,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흐드는 ‘경제적 강압’이 일시적 현상을 넘어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한국의 기존 선택 역시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개별 대응을 넘어 중견국과의 연대와 집단 대응 전략이 현실적 선택지로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담당 소장이자 조지타운대 석좌교수(사진)는 지난 6일 서



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최근 출간한 저서 ‘중국의 무역 무기화’를 소개하며 중국의 경제력 강압이 이미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전략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경제적 강압’을 보호무역이나 일반적인 통상 분쟁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는 시장 접근이나 공정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적 정치 선택을 바꾸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차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 미국 기업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9곳), 한국과 대만(각각 33곳)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그는 중국식 경제 압박의 특징으로 비공식·비공개 방식, 명확한 법적 근거의 부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수단 활용을 꼽았다.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중단, 일본에 대한 희토류 압박,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중단 조치가 모두 같은 맥락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차 교수는 대응 전략으로 중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역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CTAD) 2024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9개 품

목은 90%를 상회한다. 차 교수는 “개별 국가로서는 취약할 수 있지만, 연합하면 중국에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며 “상호의존성의 비대칭성을 활용해 중국의 무역 무기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각국이 추진하는 디리스크잉(derrisking), 즉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억지(deterrence)”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나토(NATO)의 집단방위 논리를 경제 영역에 적용해, 특정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받을 경우 동맹·파트너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사전에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어진 대답에서 차 교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에 대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기업의 투자 흐름과 공급망 재편을 근거로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희토류 등 일부 핵심 품목에서는 여전히 중국의존이 남아있으며, 이것이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집단적 회복력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G7을 중심으로 호주 등 중견국과 결합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차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이미 EU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공유하고 있고, 일본과 호주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직접 경험하며 대응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들과 한국이 결합한 ‘G7+한국·호주’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본 광고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갑자기 정전이 오면?”
“이 많은 차들을 움직일 에너지는 영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쓸 에너지는 남아있을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모두의 평범한 삶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민주당, 13일까지 답 달라”… 설 연휴 전 합당 결론 낸다

조국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말라”
시한 통보하며 대표간 회동 제안
민주, 내일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으로 지지부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 합당 논의는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최후 시한을 통보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합당과 관련한 갈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전격 합당 제안 이후 합당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홍이 심해지는 데다, 밀약설 등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주장까지 나오자 조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논의’ 관련 입장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가 직접 최후 시한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선택해 달라”며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했다.

또 “제가 요구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대표 간의 만

남이 있어야 한다.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다.

특히 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 갈등 격화를 두고 “저와 조국혁신당을 내부 권력 투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우당(友黨)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 달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인가,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인가”

라며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과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 투쟁을 벌인 집권여당이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다가 그 권력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합당 제안을 받은 우당인 조국혁신당과 대표인 저에 대해 허위 비방을 퍼부었다”며 “터무니없는 지분 밀약설, 조국 대권론을 유포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심지어 색깔론도 동원했다”며 “국민의힘 출신 인사는 과거를 묻지 않고 확대하면서 국민의힘과 가장 앞장서서 싸운 동지를 공격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민주당 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밀약 내지 밀실 합당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밀약도 없었다. 어떤 지분 논의도 없었다”며 “존재하지도 않은 밀약을 전제로 추궁하고 공격을 퍼붓는 정치적 이유가 가히 짐작이 간다. 거론되지도 않은 지분 논의를 들먹이며 줄 지분이 없다고 비난하는 행태는 모욕적”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

속히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표의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나오자 “정 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 의총 후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 10일 재선 의원 모임 및 의원총회, 오는 12일 상임고문단 회동을 앞두고 있다. 해당 일정을 소화하면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합당 제의를 먼저 꺼낸 정 대표 측에서도 최대한 설 연휴 전에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는 분위기다. 명절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될 경우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조 대표는 민주당이 이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 결정 등을 통해 ‘13일은 좀 빠르다. 우리 내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15일이다, 20일이다’ (라고 제시)한다면 그건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3선 도전 野… 탈환하려는 與 ‘격전 예고’

지방선거 돋보기

⑥ 제2의 도시 노리는 인천

인천 기반 중진급 정치인 다수 포진
원도심 개발·교통 인프라 구축 중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관심 받고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는 인구 300만을 대표하는 인천광역시의 일꾼을 뽑는 인천시장 선거다. 지난해 1월 주민등록 인구 300만명을 돌파한 인천시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넘겨 받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 만큼, 인천에 기반을 두고 오랜 시장 정치력을 해 온 중진급 정치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유정복 압승, 원도심 개발·교통 현안 떠오를 듯

현직 인천시장은 경기 김포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제6회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된 바 있는 재선의 유정복 시장이다. 지난 제8회 지선에서 인천 시군구 10곳 중 9곳에서 유 시장이 승리하며, 51.76%의 득표율을 기록했

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44.55%로 패배했다.

다만, 조기대선 후 1년만에 치러지는 지선인 만큼 여당에 유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인천 국회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조직 싸움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을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수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정면대결이 치러지며, 인천의 숙원인 원도심 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등 지역의 현안을 공약화해 나오는 후보가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여권, ‘당심이나 명심이나’ 2파전 압축
민주당은김교홍(3선·인천서구갑)의원이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구갑)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를 고심하던 정일영 의원은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의 대결은 당심과

명심(이재명의 마음)의 대리전으로도 불러 치열한 당 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김교홍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당원 1인1표제에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정 대표를 직접 만나 과천 서울경마장을 인천 강화도로 이전하고 재외 동포청을 인천에 존치하는 등 지역 현안을 담은 ‘인천발전 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일찍이 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으로 알려졌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정청래 대표에 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이 당 대표 시절에 같이 일했던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 박 전 원내대표는 당시 그 자리에서 “시장합니다”라고 농담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합니다”란 말은 배가 고프단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각에선 박 의원이 농담으로 자신의 인천시장 출마 결의를 보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화답했을 뿐,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野 “유정복 3선 도전에 이학재 등판 설도”

국민의힘에선 유정복 시장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유 시장의 대표 공약인 인천형 출생정책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신혼부부용 천원주택,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정, 재외동포청·고등법원 인천 유치, 청라하늘대교 개통 등을 바탕으로 인천시민의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시장이 1심 선고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과 공직 출마 및 임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야당도 경쟁력 있는 다른 인천시

장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내에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출마가 필요하단 시각도 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서·강화갑, 인천 서 갑에서 3선을 한 야당 내 대표적인 인천 출신 정치인이다. 최근엔 인천공항공사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 이후 이 사장이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체급 올리기’에 열을 올렸다. 또한 이 사장의 임기는 올해 6월로 종료돼,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도전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개혁신당에선 이기봉 인천시당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힘, 3·1절 새 당명 발표 예정… 尹 선고 이후 재정비

국민의힘이르면 오는 3월 1일에 새 당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재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선고 결과와 관계 없이 당 전열의 재정비를 노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7일) 서울 여의

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명 개정 작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 “논의를 거쳐 지금 스케줄대로라면 3월 1일 정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복수 당명 후보군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달 초 당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국민의힘 대국민 당명 공모전에서는 ‘국민’, ‘자유’, ‘공화’, ‘미래’, ‘새로운’, ‘혁신’, ‘보수’, ‘우리’, ‘함께’ 등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많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명 개정 작업은 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타개책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당내 혼란 등이 맞물리면서 여론조사 상에서도 6·3 지방선거 구도가 야당에 불리하게 굳어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서예진 기자

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2%)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양응답자의 격차는 12%p(포인트)다.

또 엠베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4일 조사해 5일 발표한 2월 1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KB·신한 ‘방긋’… 보험사 실적이 지주 성적표 희비 갈랐다

KB손보, 작년 당기순익 7782억
지주 비은행 이익 ‘현금창출’ 축

신한라이프, 당기순익 5077억
신한금융 비은행의 ‘버팀목’ 역할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지난해 실적에서 보험 자회사 성적표가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은 2025년 당기순이익 7782억원으로 지주 비은행 이익의 ‘현금창출’ 축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도 5077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5000억원대의 순익을 기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3년차인 2025년 실적은 단순 순이익보다 보험손익·투자손익·보험계약마진(CSM)·지급여력비율(K-ICS) 등 ‘질적 지표’에서 차별성을 나타냈다.

KB손해보험은 2025년 당기순이익 7782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4.04%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 본업 지표인 보험손익은 6267억원으로 전년 9780억원 대비 35.9%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보험 손익이 7740억원으로 감소했고, 자동차보험 손익은 -107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사고 1건당 지급액(단가)’ 상승과 자동차·장기 손해를 부담이 보험손익



KB손해보험 사옥.

을 압박했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배경으로는 투자손익이 꼽힌다. KB손해보험의 2025년 투자손익은 5284억원으로 전년 1773억원 대비 크게 늘어 보험손익 둔화를 상쇄했다.

자본여력도 개선됐다. K-ICS는 190.2%로 전년 대비 3.8%포인트(p) 상승했고, CSM은 9조285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25년에는 장기·자동차·일반보험 전 보종 손해를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보험손익 크게 감소됐지만, 대체투자 확대로 투자손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순이익 감소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했다.

KB라이프는 ‘수익성보다 체력’ 지표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KB라이



신한라이프 사옥.

/각사

프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2440억원, ROE는 5.65%로 집계됐다. 보험영업손익은 2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 감소했지만, CSM은 3조2638억원으로 8.4% 늘었고 K-ICS는 270.2%로 7.1%p 상승했다. 신계약연납화보험료(APE)는 1조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에서는 신한라이프가 비은행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신한라이프의 2025년 누적 당기순이익은 5077억원으로 2년 연속 5000억원대를 유지했다. 세전이익은 7881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법인세율 인상 영향 등으로 순이익은 3.9% 감소했다.

다만 보험손익이 7090억원으로 6.8% 늘고, 누적 금융손익도 2031억원으

로 31.5% 확대되면서 실적의 하방을 방어했다. APE는 1조7209억원(8.9% 증가)으로 늘었고, 연말 CSM은 7조6000억원(4.5% 증가), K-ICS는 204.3%(잠정)로 집계됐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영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생보와 손보의 대비가 뚜렷하다. 하나생명은 2025년 연간 순이익 15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반면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연결 기준 47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단독 기준으로도 약 350억원 적자였다.

우리금융그룹 편입 첫해를 맞은 동양생명은 지난해 순익 1240억원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60.5%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지난해 1140억원으로 전년 동기(2740억원) 대비 58.4% 줄었다. 투자손익 역시 850억원으로 1년 전(940억원)보다 9.6% 감소했다.

동양생명은 “그룹 편입 이후 지난해는 재무 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영 전반의 체질 개선에 집중한 해”라며 “올해도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장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운영과 손해를 관리를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현대카드

2월 문화 이벤트 다채

현대카드는 2월을 맞이해 전시·공연·요리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달 말까지 세계적인 대중음악 매거진 ‘롤링 스톤 컬렉션’ 전시를 연다. ‘브라질리언 그루브’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브라질 음악 특유의 감성을 정립한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대표 명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달 14일에는 ‘현대카드 큐레이트 103 튜스데이 비치 클럽(Curated 103 Tuesday Beach Club)’ 공연이 열린다. 밴드 ‘튜스데이 비치 클럽’이 풍부한 밴드 음향과 담담한 보컬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얼터너티브 록 무대를 선사한다.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 교육지원

KB국민카드가 이달부터 2026년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다.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은 지난 2015년 시작된 KB국민카드의 글로벌 분야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일회성 후원이 아닌 장기적 교육 지원을 이어오며 진정성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언어 장벽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선정된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 200여 명을 교육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 전문 강사가 아동의 나이와 수준에 맞춰 주 3시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우리카드

이큐비알홀딩스와 맞손

우리카드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 ‘이큐비알홀딩스’와 디지털 자산 월렛 및 지급결제 플랫폼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양사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앞서 시장 규제와 기술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책을 함께 마련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제도권 금융 안에서 도입 가능한 최적의 블록체인 모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설 연휴기간 ‘대출 만기’시, 이자없이 19일로 자동연장

금융당국·금융회사, 명절대책
12개 은행, 연휴 금융거래 대응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회사들이 오는 14~18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추진한다.

먼저, 각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2월 14일~2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월 19일로 자동 연장한다. 이 경우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중 카드 이용액 대금 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연체료 없이 2월 19일까지 납부가 연기된다. 해

당 금액은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은 연휴 이후로 늦춰진다.

또한 모든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9일에 환급한다.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13일에도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휴 직후(오는 19일~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단,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일부 채권·금·배출권 등에 대해서는 13일에 매도한 경우 거래대금의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12개 은행은 설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주택연금 주관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오는 13일 미리 연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금융권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의자금수요에 따라 금리우대 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대출 및 특별보증 등 자금 공급에 나선다.

은행권에서는 설 연휴를 전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하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6000억원(신규 32조2000억원·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운영기간 및 금리 인하 수준은 개별 은행별로 상이하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

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며, 총 대출 공급 규모는 9조원(신규 3조5000억원·만기연장 55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4조8000억원(신규 6000억원·만기연장 4조2000억원)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인천·부산 2개 단지서 3492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일반분양 901가구 청약 개시

2월 둘째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901가구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화 건설부문·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상인천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56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59㎡, 7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보권 내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다. 인천시청역은 향후 GTX-B노선 개통이 예정돼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차량 이동 10분 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가천대길병원, 인천시청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이용 가능하며, 상인천초, 인제고, 인천예고 등을 도보 통학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에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8개동, 총 924가구 규모다. 이 중 단일 면적 59㎡, 총 16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반산초, 재송중이 단지과 맞닿은 초중품이 단지이고, 센텀학원가가 가까워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중심 반경 1km 내 동해선 재송역이 위치해 부산 도심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등 대형 리테일 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

LG전자, 글로벌 사우스 공략 가속 ‘AI홈’ 등 중동·아프리카 현지 특화

UAE서 ‘LG AI 홈’ 솔루션 소개
모래·먼지 등 현지환경 맞춤 대응
대가족 문화특성 반영 신제품 전시

LG전자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현지 주요 거래선을 대상으로 AI 홈과 현지 특화 신제품 발표회를 잇따라 개최해 성장을 가속화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한다.

LG전자는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중동·아프리카 주요 거래선을 초청해 올해 첫 ‘LG 이노페스트’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가전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제로 레이버 홈’ 비전을 제시하고, AI를 탑재한 현지 특화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먼저 ‘LG AI 홈’에서는 고객들이 거실, 주방, 침실, 드레스룸, 다이닝 등 다양한 공간에서 AI 홈허브 ‘씽큐 온’과 ‘LG 씽큐’ 앱을 활용해 가전 및 IoT 기기가 하나의 완전된 솔루션으로 작동되는 통합 AI 홈 솔루션을 체험했다.

AI 홈 솔루션은 가전과 IoT 기기를 24시간 연결 상태로 유지하며,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AI가 맥락과 공간을 이해해 연동된 다양한 제품들을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한다. LG전자



LG전자가 세탁물의 무게, 옷감 종류, 오염도를 분석한 뒤 최적의 세탁·건조 패턴을 적용해 옷감 손상을 줄여주는 ‘AI DD모터’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는 ▲모래·먼지가 많은 현지 환경을 고려한 공기질 관리 ▲보안에 민감한 고객들을 위한 홈 보안 시스템 ▲중동지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구현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했다.

LG전자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주택을 타겟으로 한 ‘LG AI 홈’ 기반 B2B 사업도 강화한다. 특히 건설사, 호텔, 인테리어, 스마트홈 업체 등 통합 솔루션 수요가 높은 고객군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신제품 전시존에서는 AI로 한층 진화한 가전 신제품과 현지 생활패턴에 적합한 혁신 기능이 대거 공개됐다. LG전자는 대가족 문화 특성을 고려해 세탁기,

건조기, 위시콤포, 위시타워 등 다양한 세탁가전의 대용량 라인업을 확대한다. AI가 세탁물의 무게·오염도·재질을 분석해 최적화된 맞춤 세탁건조를 하는 ‘AI DD 모터’ 기술도 강조했다. 또 사용 패턴을 학습·분석하고 냉기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AI 냉기케어 시스템’이 적용된 냉장고는 대용량 식재료 보관 수요가 높은 현지 특성과 부합해 주목받았다.

LG전자 중아지역대표 정필원 전무는 “제품 본원의 경쟁력에 AI를 더한 AI 홈 솔루션과 현지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들로 파트너사와 협력을 공고히 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현대중, 사우디 호위함 수주 팔 건어

WDS 참가… 현지화·산업협력 투트랙

HD현대중공업이 현지화·산업협력 전략을 앞세워 사우디 호위함 수주 경쟁에서 존재감을 키운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6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HD현대중공업은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오에스티(EOST)와 연합 전시관을 구성해 첨단 함정 건조 기술과 해상방위 역량을 종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6000톤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비롯해 총 8종의 함정을 선보인다. 또 전시회 기간 사우디 국방부와 해군 주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패키지 솔루션을 강조할 계획이다. 설계·건조·사

업관리 역량과 페루 시마조선소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지 건조 및 MRO까지 포함한 실적 기반의 경험과 차별화 전략을 소개한다.

사우디 정부가 현지 생산 비율을 요구하는 정책 기조에 맞춰 단계적 현지화 방안도 제시한다. 향후 호위함 수주 시 HD한국조선해양과 사우디 국영 기업 아람코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사우디 IMI 조선소를 중심으로 HDF-6000의 현지 건조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WDS 기간 중 HD현대중공업은 사우디 투자부와 LIG넥스원, STX 엔진 등 국내 기업 12개사와 ‘사우디 현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이번 MOU를 통해 사우디 산업 참여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사우디 시장에 동반 진출하기로 했다.

/유혜은 기자

공간 키우고 효율성 강화… 가격 거품 ‘쫓’

YG의 CAR TALK 카톡

푸조 ‘올 뉴 5008’

10년만에 완전변경… 상품성 대폭 개선

좁은 골목길과 주차장, 백화점 회전 구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부담없이 주행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밀리 SUV다. 여기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연비까지 압도적인 경제성까지 확보했다.

바로 프랑스 완성차 브랜드 푸조의 7인승 SUV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이하 올 뉴 5008)가 그 주인공이다. 올 뉴 5008은 2세대 이후 10년 만에 완전변경을 거치며 실내 공간을 키우고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푸조의 올 뉴 5008의 성능 분석을 위해 지난 2일 경기도 김포에서 인천 강화도까지 왕복 약 60km 구간에서 시승을 진행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전 세대보다 한층 강인해졌다. 차량 중앙에 위치한 푸조 엠블럼을 중심으로 통일된 톤의 그라데이션 프론트 그릴을 배치해 미래적 분위기를 담아낸다. 발광다이오드(LED) 매트릭스 헤드램프와 사자가 발톱으로 할린 듯한 3개의 주간주행등(DRL)은 푸조 고유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다. 실내 공간은 7인승 SUV로 운영하기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았다. 길이 4810mm,



푸조 올 뉴 5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주행모습.

너비 1875mm, 높이 1705mm로 2:3:2 구조의 7인승이다. 이전 세대보다 길이 160mm, 너비 30mm, 높이 55mm가 확대됐다.

운전석에 앉으면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등이 모두 일직선으로 합쳐져 전체적으로 깔끔함이 묻어났다.

주행 성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48V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도심 주행 시간의 약 50%를 전기 모드로 운행하며, 정숙성과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는 각각 136마력/23.5kg·m, 15.6kW/5.2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합산 최고 145마력으로 일상 주행에 최적화된 민첩하고 부드러운 주행 성능을 제공했다. 연료 효율성도 뛰어났다. 복합 연비(13.3km/L)를 훌쩍 뛰어넘는 15.38km/L를 기록했다.

가격은 알튀르 트림 4814만원, GT 트림 5499만9000원이다. 올 뉴 5008이 출시된 국가 중 최저가다.

/양성운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 설비폐쇄’ 갈등 격화

사측 “적자 지속… 구조조정 불가피”
노조 “존속 전제로 방안 제시해야”

철근 수요 감소와 설비 과잉을 이유로 현대제철이 인천공장 일부 설비 폐쇄를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 회사는 적자 구조를 근거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공장 존속을 전제로 한 대체 사업·전환 투자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인천공장 노조는 지난 3일과 5일 특별 노사 협의회를 열고 설비 폐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폐쇄 철회와 대안 마련을 요구했고, 사측은 휴업·고정비 절감·가격 안정화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했으나 누적 적자 상황에

서 계획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설비 폐쇄의 배경으로 철근 수요 감소와 구조적인 설비 과잉을 들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내 철근 수요는 연평균 약 1000만톤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약 700만톤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국내 철근 설비능력은 약 1250만톤으로 수요를 크게 웃돌아 설비 과잉 상태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설비를 줄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규 설비 투자나 대체 물량 등 먹거리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별도 대안 없이 폐쇄만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은 설비 폐쇄에 따른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유휴 인력을 전환 배치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비효율 설비를 정리해 고정비 자체를 줄이고, 생산을 잔여 설비에 집중해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톤당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철근은 건축용 자재로, 건설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발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 국내 업체가 버티기 어렵다”며 “수요가 없는 환경에서 과잉 설비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약을 위해서는 노조도 일정 부분 조정과 혁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여건이 악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고, 수용 범위는 추가 협의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금호타이어, 지난해 매출 4.7조… 창사이래 최대

미·유럽 등 주요시장 매출 증가세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4조701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창사이래 가장 많은 매출액을 달성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금호타이어는 2025년 연결기준 경영실적으로 매출액 4조7013억원, 영업이익 5755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조1601억원(영업이익 1453억원)으로,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분기 매출 1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발 관세 부과, 광주공장 화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신차용(OE) 및 교체용(RE) 타이어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며 달성한 실적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매출액 5조1000억원 달성, 18인치 이상 고인치 제품 판매 비중 47% 달성, 글로벌 OE 매출 기준 EV 타이어 공급 비중 30% 확보 등을 제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무안경 3D 사이니지’ 기술력 입증

‘ISE 최고의 제품상’ 등 글로벌 수상

삼성전자의 초슬림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삼성 스페셜 사이니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삼성 스페셜 사이니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26’에서 ‘최고의 제품상(Best of Show at ISE)’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 스페셜 사이니지는 디지털 사

이니지, 설치, AV 테크놀로지 등 3개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제품상으로 선정됐다.

매체들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고의 제품상’ 이외에도 북미와 영국 주요 AV 매체가 별도로 심사하는 어워드도 휩쓸었다.

또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전문 어워드가 선정하는 ‘최고의 혁신 디스플레이 기술상(Innovation in Display Technology)’을 받았다.

/차현정 기자

코웨이, 방준혁·서장원 역할분담 시너지… 매출 5조 ‘성큼’

〈넷마블 의장〉

〈대표이사〉

작년 15.2% 성장 속 4.9조 매출 올려 방 의장 구상한 ‘비렉스’ 성장 견인 렌탈 판매 185만대·계정 1143만 서장원 “침대 점유율 1위 달성 유력”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40% 지속

방준혁 넷마블 의장과 서장원 코웨이 대표의 케미가 코웨이를 연매출 5조원 기업으로 바짝 이끌고 있다.

서장원 대표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침대 매출은 2025년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이 유력하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환경 가전 기업이 매트리스 렌탈로 전통 침대업계를 누르고 절대 강자로 올라서는 분위기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해 매출 4조9636억원, 영업이익 8787억원, 당기순이익 6175억원을 달성했다. 전년도에 비해 매출은 15.2%, 영업이익은 10.5% 각각 느는 등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2027년까지 ‘매출 5조원 초과 달성’을 공식화했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5조원 돌파는 올해 충분히 가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할 전망이다. 2024년 4조원 매출을 돌파한 뒤 2년만에 1조원이 더 느는 셈이다.

코웨이측은 얼음정수기와 비렉스(BEREX) 브랜드의 침대·안마의자가 높은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연간 렌탈 판매량은 185만대로 전년 보다 7.7% 증가했다.

슬립·힐링케어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는 비렉스는 방준혁 의장의 전략적 구상에 따라 2022년 12월 선보였다. 비렉스는 지난해에만 연결 기준으로 7199억원



서장원 코웨이 대표.

의 매출을 거두며 새 수익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넷마블 창업주로 2020년 코웨이를 인수한 방 의장은 ‘IT 기반 렌탈 비즈니스 고도화’를 청사진으로 내놓고 ▲혁신 신제품 ▲신사업 확장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 담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등 신사업과 아이콘 정수기 등 혁신 상품 개발, AI 도입 등 미래 전략은 방 의장이 전담하고 조직 관리와 효율적 운영 등 경영 전반

은 서 대표가 총괄하는 구조로 명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면서 “방 의장이 사업 전략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마블의 품에 안긴 후 코웨이의 2020~2025년 연평균성장률(CAGR)은 매출액 8.6%, 영업이익 11.5%, 당기순이익 10.8%를 각각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 국내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넷마블은 코웨이 지분 25.74%를 보유한 대주주다.

침대업계에서 코웨이의 반란도 눈에 띈다. 코웨이는 2011년 당시 매트리스케어렌탈 사업을 시작하며 침대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에이스침대, 시몬스, 금성침대 등 전통 침대회사들과 한샘, 현대리바트, 신세계까지, 에몬스 등 종합가구회사들이 이끌던 시장이었다.

지난해 코웨이는 침대 사업에서만 총 3654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전년보다 무려 15.4%의 성장세다.

시몬스와 에이스침대가 선두를 놓고 앞서거나 뒤처거나 하고 있는 가운데서 대표의 공언대로라면 코웨이가 이들 침대 전문회사보다 점유율이 더 높아진 셈이다. 다만 에이스침대와 시몬스는 아직 작년 실적을 공표하지 않았다.

서 대표는 “정수기, 청정기, 비데에 머물지 않고 슬립 및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를 통해 침대와 안마의자 제품군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면서 “침대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이는 코웨이를 ‘환경 가전 기업’에서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재정의하는 발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코웨이는 핵심 지표인 전체 렌탈 계정수가 지난해에 1143만개까지 증가했다. 이는 전년보다 10.6% 늘어난 수치다.

한편 코웨이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공개 주주서한에 대해 공식 답변을 전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코웨이는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 40%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이 주주 가치 제고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2026년 귀속 주주 환원부터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해 해당 요건도 충족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부터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C레벨 주관의 온라인 컨퍼런스홀도 도입하는 등 주주들과의 소통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배터리소재 업계, ESS·차세대 분야로 재편

엘앤에프, ESS LFP 투자·3분기 양산 포스코퓨처엠, LFP 전환·전고체 추진 에코프로비엠, 유럽 공장 2분기 가동

배터리 소재 업계가 올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차세대 소재를 축으로 사업 전략 재편에 나선다. 전기차 중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SS와 로봇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대응에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엘앤에프는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에 더해 ESS를 겨냥한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를 신규 성장 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LFP 양극재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2027년까지 총 6만톤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다. 올해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양산에 돌입해 ESS 시장 확대와 비중국 공급망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존 Ni95 등 하이니켈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ESS용 LFP를 통해 수요 기반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엘앤에프 대구 구지 3공장.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도 ESS용 LFP 양극재 생산에 나선다. 포항 양극재 공장의 하이니켈 라인 일부를 전환해 올해 말 ESS용 LFP 양극재 공급을 목표로 생산 체제를 재편하고 있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미국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팩토리얼과 손잡고 전고체 배터리용 핵심 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팩토리얼은 현대차와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도 파일

럿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은 ESS와 유럽 시장 확대를 통해 북미 전기차항 사업 부진의 영향을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준공한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은 올해 2분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연간 5만4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춘 유럽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올해는 약 1만톤 수준으로 가동을 시작한 뒤 내년에는 2만~3만톤 규모로 생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계기로 주목받는 고체 전해질 분야에서도 사업 전개가 이어지고 있다. 연산 4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하며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과의 품질 검증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양산 라인 설계가 진행 중이다. 수요 확대 추이에 맞춰 내년 양산 라인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LFP 양극재와 관련한 추가 투자 계획은 시장 여건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홍대 ‘K-StartHub’ 첫 입주기업 모집

중기부, 37개사 안팎 선발… 4월 오픈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서울 홍대 입구에 새롭게 들어설 ‘K-StartHub’ 첫 입주기업 37개사 안팎을 모집한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K-StartHub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에 오는 4월 문을 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뿐만 아니라 한

국에서 창업하길 원하는 외국인의 정착·인허가 절차를 돕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초기 정착부터 글로벌 스케일업까지 창업기업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인·아웃바운드 종합지원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입주기업들은 독립형 사무공간을 비롯해 회의실, 라운지 등 업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비입주기업도 멤버십 형태로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들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기술·법률·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오픈이노베이션·글로벌 진출·투자 연계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간은 초기 2년, 연장 1년을 포함해 최대 3년이다.

특히, K-StartHub에는 SK텔레콤, 현대건설 등 국내외 대기업과 쇼록 파트너스(Shorooq Partners), 앤틀러(Antler) 등 글로벌 투자사 등이 함께 입주해 초기부터 글로벌 네트워킹과 협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김승호 기자

‘中企 위기극복 알림서비스’ 본격 시행

중진공, 위기수준 따라 4단계 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위기극복 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부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기 징후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위기극복 알림서비스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활용해 재무, 금융거래, 대표자 신용정보 등 내·외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위기징후가 감지된 기업에 대해 단계별 맞춤형 정책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중진공은 앞서 지난달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를 핵심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알림서비스는 기업이 위기를 인지한 이후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찾아야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중진공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 필요한 지원책을 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조기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위기 수준에 따라 ▲주의 ▲예비경보 ▲경보 ▲부실화 기업 4단계로 구분해 운영한다. ‘주의’ 및 ‘예비경보’ 단계 기업에는 정책자금, 유동성 지원, 경영개선 관련 사업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경보’ 단계 기업에는 회생 컨설팅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

/김승호 기자

소비재 中企 온·오프 유통채널 입점 돕는다

중기중앙회, 13개 채널 품평회 접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업체 선정을 위한 품평회 참가접수를 9일부터 실시한다.

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품평회에는 총 13개 유통채널이 참여한다.

오프라인 분야에는 ▲5대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AK) ▲롯데마트 ▲이마트와 온라인 분야에는 ▲11

번가 ▲롯데쇼핑 ▲커머스 ▲우아한형제들 ▲우체국쇼핑 ▲쿠팡 ▲홈쇼핑이 각각 참여한다.

품평회 참가 대상은 국내에 소재한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 대상 품목은 대형가전·가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은 품평회에서 분야별 전문 MD(상품 기획가)의 대면 심사를 거쳐 유통채널 입점 등 상생 사업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김승호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美 빅테크, AI 인프라에 982조 투입… 수익률 의문 제기도

MS·메타·아마존·알파벳
AI 인프라 주도권 경쟁 치열

AI 산업 초기단계… 변수 많아
뚜렷한 실적 호조도 아직 없어

미국 빅테크들이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국가 경제의 단위를 넘어섰다. 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알파벳의 올해 AI 투자 계획은 한국 명목 GDP의 절반을 웃돌고, 정부 연간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로, 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기업 간 기술 싸움을 넘어 초대형 인프라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은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670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982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광고와 클라우드 등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투



마이크로소프트·메타·아마존·알파벳이 올 한해 최대 6700억 달러, 우리돈 982조 원을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쏟아부을 예정이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 규모는 한국 명목 GDP의 절반을 웃돌고, 정부 한 해 총지출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메타는 올해 자본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지출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으나, 메타가 AI

도입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투자 발표 이후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마주했다. 아마존은 올해 AI 데이터센터 증설 등에 투입할 자본 지출

을 전년 대비 약 60% 늘린 200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의 150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규모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부각되면서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발표 직후 단 하루 만에 약 182조 원이 증발하는 부침을 겪었다.

구글 역시 지난해 자본 지출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850억 달러를 올해 예상액으로 제시했다.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는 “미래를 내다본 투자”라며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요가 매우 강해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나, 주가는 발표 당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올해 1400억 달러 이상을 AI 설비와 관련 부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본 지출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AI 사업이 투자자를 설득할 만큼의 실질적 성장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 속에 주가는 7%가량 하락했다.

미국 투자은행 DA 데이비스의 길 루

리아 연구원은 이들 4개사가 AI 인프라 주도권을 둘러싼 현재의 경쟁을 승자 독식 구도로 보고 있으며, 그 어느 기업도 이 레이스에서 뒤처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투자 열기를 두고 월가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AI의 산업별 도입과 상품화가 아직 초기 단계라 변수가 많은 데다 대규모 베틱을 뒷받침할 뚜렷한 실적 호조가 동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걱정을 일축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는 적절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황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 도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으며 투자 수요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달리 현재는 유휴 인프라가 없고 기업들이 실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소프트웨어, AI로 대체… SaaS 산업 ‘위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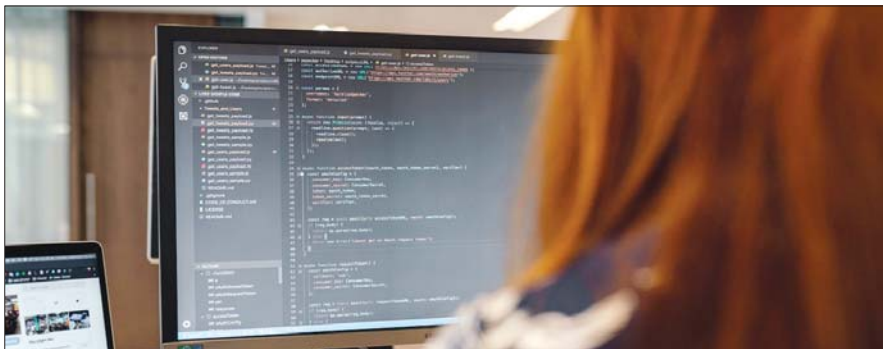
앤스로픽 AI 에이전트 ‘클로드 코워크’
대화 중심 작동 넘어 스스로 목표 수행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 수익모델 붕괴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선보인 AI 자동화 도구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며 뉴욕 증시에 거센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AI가 기업용 구독형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종말을 뜻하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SaaS Apocalypse, 서비스제공방식의 소프트웨어인 SaaS에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아포칼립스를 결합한 신조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

8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S&P500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약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추산된다. 소프트웨어 업종만 따로 집계한 S&P500 소프트웨어 산업 지수 역시 최근 5거래일 동안 13.9% 급락하며 낙폭을 키웠다.

주가 하락의 범위는 매우 깊고 넓다. 오라클,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등 미국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올해 들어 일제히 20~30%가량 하락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놓았으나 주가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개별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산업 전반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투자심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폭락의 배경에는 오픈AI와 앤스로픽 등 선두권 AI 기업들이 잇따라 공개한 AI 에이전트 기술이 자리하고 있다.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컴퓨터 시스템을 조작하며 복잡한 업무 목표를 수행하는 이 지능형 도구는 특정 기능을 구독 형태로 판매해온 기존 소



AI 기술 기업들이 내놓은 AI 에이전트 기술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ixabay 무료 이미지

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불안에 불을 붙인 결정적 계기는 지난 달 12일 앤스로픽이 공개한 AI 에이전트 클로드 코워크였다. 코워크는 대화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기존 챗봇과 달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스프레드시트 생성, 대규모 데이터 정리 등을 스스로 수행한다. 사용자가 컴퓨터 내 폴더와 최종 목표만 지정하면 AI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 전 과정을 실행하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 3일 앤스로픽이 코워크에 법률과 금융 등 전문 영역을 겨냥한 11개 플러그인을 추가로 공개하자 시장 반응은 격렬해졌다. 해당 플러그인들이 법률 문서 분석, 금융 데이터 정리, 리서치 요약 등 그동안 고가의 전문 소프트웨어나 다수 인력이 필요했던 영역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오픈AI 역시 코딩과 컴퓨터 작업에 특화된 새 모델 GPT-5.3 코덱스를 선보였으며 기업들이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프런티어를 출시하며 맞불을 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톰슨로이터와 리걸줌 등 리서치 법률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 급락했다. 인튜이트, 페이팔, 에퀴팩스 등도 10% 넘는 하락 폭을 기록하며 이날 하루에만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약 3000억 달러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AI가 소프트웨어를 희소 자산에서 누구나 찍어낼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재로 전락시킬 위기”라며, 이는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 모델 자체를 붕괴시키는 시장 파괴적 현상의 시작이라고 진단했다. 베세머 벤처파트너스 또한 2025년 AI 현황 보고서를 통해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인간을 돕는 도구였기에 사용자 수대로 돈을 받았지만 이제 AI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되면서 전통적인 요금제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사스포칼립스가 과도한 공포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소프트웨어가 쇠퇴하고 AI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인식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전문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 실행 횟수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의 엔지니어는 수많은 AI 에이전트와 함께 설계와 개발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상 좌석의 수요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논리다. 과거 1950년대 기계어에서 고급 언어로 넘어갈 때도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서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서현 기자

과기부, 경남 피지컬AI 사전검증 성과 점검

향후 ‘경남 AX’ 연구개발 연계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신성델타테크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피지컬 AI 기반 지역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피지컬 AI 기반 정밀 제어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경남 AX’ 대형 연구개발 사업과의 연계 방향에 대한 기업과 연구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착수한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은 기존 공정 자동화를 넘어, 제조 현장의 물리적 특성과 숙련자의 노하우를 AI 모델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AI가 로봇과 설

비를 직접 제어하는 물리 기반 신경망(PINN) 기반 대형언어모델(LAM)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전검증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경남대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서울대와 경남 지역 제조 기업 8개사가 참여했다. 사업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국비 197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실증 결과, 일부 참여 기업에서 공정 품질 예측과 생산 효율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신성델타테크는 플라스틱 사출·조립 공정에서 사출성형 공정 데이터와 작업자 행동, 원자재 상태, 불량 현상 등 액션 데이터를 결합한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품질 예측·보정 모델을 적용해 불량률 약 15% 감소와 설비 가동률 약 20% 향상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서현 기자

LG U+, 설 연휴 여행객 위한 로밍 혜택

데이터 2배, 최대 15만원 캐시백

LG유플러스는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로밍 및 결제 혜택 프로모션을 28일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대한항공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해외 로밍 데이터 2배, 최대 15만 원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4만4000원 이상 등급의 로밍패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대한항공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2배 혜택이 제공된다. 프로모션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로밍패스 가입 후 U+공식온라인스토어 이벤트 매뉴에서 ‘혜택받기’를 신청하면 된다.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은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한 대한항공 기종에 탑승하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LG유플러스 직원이 인천공항 내 로밍센터에서 프로모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로 제공한다.

로밍패스는 본인을 포함해 최대 5명까지 데이터를 나눠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최대 17GB를 제공하는 4만4000원 로밍패스 기준으로 1인당 3GB 이상의 데이터를 1만 원 미만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직업계고 학생, 지역인재로 키운다

고용부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
경북도·인천시·충남도 신규 선정
스마트제조, 첨단 뿌리산업 등 육성

고교 단계부터 일·학습·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인재 양성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 공모에 참여한 9개 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상북도·인천광역시·충청남도 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제도약지구는 전국 최초로 지역 주도형 고교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 학교)을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중앙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청이 직업계고·기업·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 체계를 설계·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선(先) 채용한 뒤 현장훈련(OJT)과 이론교육(Off-JT)을 병행하는 대표적인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제도다. 직업계고 졸업 후 전문대 연계 과정(P-tech) 등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재직자가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경우 훈련 1년 후 동일 지역 근속률이 6.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제도약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충청

도제도약지구 선정 지역과 주요내용

	도약스쿨	지역주력산업	주요내용
 경북	경북기계금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여자정보고 경주정보고	스마트제조산업 (경산, 김천) 관광산업 (경주)	■ 금속정밀가공·고숙련 기술 과정 ■ 핵심직무기반 모듈형 교육과정 개편 ■ 관광(MCE)분야서비스인재 양성과정
 인천	부평공고, 재능고 인천기계공고 인천반도체고 인평자동차고	첨단뿌리산업 기계·전기전자반도체 자동차	■ AI기반 도제학교(금형) 성장지원 과정 ■ 미래차·전장 등 신기술 교육과정 개발 ■ 첨단 뿌리산업 정주 지원 프로그램
 충남	천안공고 서산공고 국방항공고 강경상고	석유화학 (서산) 반도체·디스플레이 (천안·아산) 국방군수 (논산)	■ 반도체 부품 정밀가공 특화 과정 운영 ■ 도제마스터 성장을 위한 後학습 강화 ■ 직종고도화를 통한 국방항공 인재 양성

자료/고용노동부

기 지역인재 양성 전략 수립 ▲학습기업 발굴 ▲교육과정 개발 ▲도제학교 운영 ▲시설·장비·전문인력에 대한 행·재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지역 주력 산업인 스마트 제조(경산·김천)와 관광산업(경주)을 축으로 경북기계금속고, 경주정보고 등 4개 직업계고를 도약스쿨로 지정한다. 금속 정밀가공과 고숙련 기술 중심의 도제훈련을 강화하고, 관광(MICE)분야서비스 인재 양성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기계·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첨단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부평공고, 재능고 등 5개 학교를 도약스쿨로 선정했다. AI 기반 도제학교(금형) 성장 지원 과정과 미래차·전장 분야 신기술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병

행한다.

충청남도는 반도체·디스플레이(천안·아산)와 국방군수(논산)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천안공고, 국방항공고 등을 통해 반도체 부품 정밀가공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고졸 취업자가 ‘도제 마스터’로 성장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연계한 후(後)학습 체계도 강화한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청년들은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 정주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기업은 지역 주력 산업에 부합하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학습병행 도제도약지구의 장점”이라며 “청년들이 지역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인니,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

해수부, 통관 시간·비용 절감 기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부산 영도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IQA)과 수산물의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지정한 수산생물질병 관련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형태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이 증명서는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활용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된다.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통관이 가능하다.

양측은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수산물 수입으로는 네 번째, 수출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전자검역증명서 적용 3

개국을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38%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약정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해 발급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1만4000여 건의 한-인니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체결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적극 추진하여 안전한 수산물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4인 가구 설 차례상 비용, 20만원 초반”

aT, 차례상 24개 품목 가격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가구당 평균 20만2691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설 대비 0.3% 내린 수치다.

aT는 이달 6일 기준 전국 23개 지역 내 17개 전통시장 및 36개 대형유통업체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다.

업체별로, 전통시장은 18만5313원으로 지난해보다 1.6% 하락했으며 대형유통업체는 22만7876원으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전체 24개 품목 중 시금치·애호박·한우 등 14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가격이 더 낮았으며, 총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8.7% 저렴했다.



설 명절을 앞둔 8일 서울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품목별로는 최근 공급량이 늘고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 등 농산물이 전년 대비 각각 5.5%, 15.4%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aT는 “지난달 강세를 보이던 축산물 가격도 자조금과 연계한 할인지원 등이 진행되면서 낮아지는 추세”라며 “설이 가까워질수록 차례상 차림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재단회사 활용 사익추구 사례 적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檢 고발
지배력 유지, 유동성 관리수단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하면서도 이를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김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국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 재단회사 15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단과 재단회사들은 1999년 11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 법인의 계열편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D B그룹에서 계열 제외됐다. 그러나 공정

위 조사 결과, DB 측은 최소 2010년부터 이들 재단회사들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을 위해 활용해 왔고, 2016년 이후에는 재단회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까지 설치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DB가 동일인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43.7%를 보유한 디비아이엔씨를 통해 제조회사 계열사를 지배하는 한편, 내부지분율이 23.9%에 불과한 디비하이텍의 경우 지분 구조 유지에 민감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재단회사들은 디비하이텍의 재무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DB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당시에는 무리한 차입을 감수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단회사가 디비하이텍으로부터 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김 회장 개인에게 220억원을 대여했고, 1년 뒤 상환을 받은 직후 동일 금액으로 디비하이텍 지분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재단회사가 김 회장 개인의 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DB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있었던 시기에는 재단회사들이 차입까지 감수하며 디비아이엔씨와 디비하이텍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디비아이엔씨가 자금 확보를 위해 보유 중인 디비하이텍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가 유사한 규모의 지분을 대신 취득했다는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만公, 日 물류기업에 부산항 알려

‘부산항 이용 촉진 설명회’ 열어

부산항만공사(BPA)가 일본을 방문해 현지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산항 홍보에 나섰다.

BPA는 지난 3~5일 일본 니가타시와 하치노헤시에서 현지 화주 및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부산항 이용 촉진 설명회’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8일 BPA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부산항의 전략적 가치를 알리고 양 지역 항만과의 물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니가타와 하치노헤 지역은 부산항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양일 간 열린 설명회에는 현지 화주와 물류기업 관계자 등 약 270명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부산항이 제시하

는 물류 솔루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해운 네트워크 재편 등의 물류 환경 변화 속 부산항이 일본 화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의 역할과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부산항이 전 세계 주요 항만과 연결된 주당 260여 개의 정기 항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글로벌 선사 네트워크와의 높은 연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환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항만임을 알렸다. /세종=김연세 기자

장에 상주하는 ‘올데이(All-Day) 집중 순찰’을 병행한다. 축사나 산업단지 등 위치 파악이 어려운 초소형 공사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총 9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킴이가 발굴한 위험 현장을 ‘소규모 특화 안전 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과 지분을 소유·임차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붕 채광창 안전 덮개 등 6개 추락 예방 안전시설의 구입·설치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730명의 지킴이가 현장을 누비고 95억 원의 재정이 뒷받침되는 소규모 현장 사고 예방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이라며 “지킴이의 빈틈없는 순찰과 소규모 특화 사업의 든든한 안전설비 지원을 통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재 예방점검·재정지원 병행

건설현장의대표적 사망 원인인 ‘떨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대규모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8일 올해 총 730명 규모의 ‘건설업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새로 구성해 중소·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점검과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지킴이는 역할에 따라 ‘일반 지킴이’와 ‘지붕 지킴이’로 나뉜다. 일반지킴이는 관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붕 지킴이는 떨어짐 사고 위험이 가장 큰 지붕 공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예방 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지붕 지킴이는 ▲사전 신고 없이 진행 중인 지붕 개·보수, 태양광 설치·해체 현장을 찾아내는 ‘발굴형 순회 순찰’과 ▲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실시간 점검하고 개선될 때까지 현

건강창업의 모든 것!



대한홍삼(주)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햅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www.koreahongsam.co.kr

창업문의 : 1522-7585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햅터그룹

Haetter Group

(주)햅터
(주)햅터방송_브레인TV
(주)햅터라이프_햅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수도권까지 2시간 대 걸린다… 경남도, ‘남부내륙철도’ 착공

총연장 174.6km, 7조 974억 투입
김천~거제, 진주~마산 연결
2031년 목표… 지역산업 회복 견인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6일 오전 11시 30분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본격 건설을 알리는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 경북도지사와 경남도지사, 정부관계자와 사업 시행자,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주민 등 약 400명이 모여 영남 서부권의 숙원 사업인 고속철도 착공을 축하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총연장 174.6km 구간에 총사업비 7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기간 철도망 사업이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며 완공되면 고속열차(KTX·SRT)가 김천역을 거쳐 거제까지, 진주역에서 마산역까지 달리게 된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6일 거제 아그네스파크에서 남부내륙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뉴시스

개통 후에는 고속철도 서비스 소의 지역이었던 영남 서부와 수도권이 2시간 40분대로 연결된다. 하루 25회 운행 예정인 고속열차는 수도권 접근성을 크게 높여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지역 산업 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생산 유발 13조 5000억원 ▲부가 가치 유발 5

조 8000억원 ▲취업 유발 8만 6000명 등이 예상돼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파격 단축했다. 2023년 6월 총사업비 증가로 필요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국토부 및 기재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절차를 약 9개월 만에 끝냈다.

지난해 12월 철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도 경유 지자체를 직접 방문·설득하며 긴밀히 협력해 1~2년이 걸리는 필수 법정 절차를 단 3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런 선제적 대응이 오늘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가 됐다.

현재 전체 14개 공구 가운데 10개 공구가 시공 계약을 완료했다. 10공구는 기본 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공구는 상반기 중 실시 설계 기술 제안 방식으로 공고된다.

착공 이후에는 각종 관계 기관 인허가 협의와 함께 국가철도공단에서 보상 계획 공고·열람, 감정 평가업체 선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 보상 협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절차를 순차 진행한다. 도는 철도 개통에 맞춰 시군과 협력해 역세권 개발을 병행하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난 6일 도청에서 ‘경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도, 제2차 공공기관 유치 활동

‘경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
총 21명 구성… 2년간 컨트롤타워

경북도는 지난 6일 도청에서 ‘경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진석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위원 21명과 실·국장들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와 공동위원장 선출, 유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유치위원회는 과학과 산업, 경제, 에너지 등 각 분야 전문가 19명과 당연직 위원 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공동위원장은 출범식 당일 위원

가운데 호선을 통해 선출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주요 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밀착형 유치 활동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경북도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했다. 도는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 첨단산업 집적 효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단계에 걸친 검토를 진행했으며, 산업 파급 효과가 큰 40여 개 기관을 전략 유치군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포항시, 소상공인 1200억 특례보증 시행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조성

포항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6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 금융기관과 함께 총 1200억원 규모의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9일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참여 금융기관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이 시행된다.

협약에는 i뱅크 28억원, 하나은행 6억 5000만원, KB국민은행 4억원, N

H농협은행 4억원, 신한은행 3억원, 케이뱅크 2억원 등 총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모두 50억원을 출연했다.

포항시 역시 금융기관과 같은 규모인 50억원을 출연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12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 청년 창업자와 2인 이상 다자녀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양산시,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

물금읍 한아름병원, 야간·휴일 진료

양산시가 6년간 이어진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한다.

양산시는 물금읍 한아름병원이 지난 2일 경남도에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아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양산시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웅상중앙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이후 약 6년 만이다. 그동안 신규 신청 의료 기관이 없어 야간과 휴일 소아 진료 공백이 계속됐으며 양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소아 인구 비율과 진료 수요가 높아 시민 불편이 컸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밤이나 주말에 아이가 아플 경우 다음날 아침까지 해열제로 버티며 병원 개원을 기다리는 ‘오픈’ 현상을 겪거나, 경증 질환에도 응급실을 이용하며 장시간 대기과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감내해야 했다.



한아름병원 전경. /양산시

한아름병원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말까지 운영되며 2년마다 운영 성과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진료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동일 건물 내 있는 ‘365물금약국’이 협력 약국으로 지정돼 진료부터 처방조제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산(경남)=장선호 기자 metrobusan2601@

울산시, 올해 녹지정원 시책 본격 추진

관계 기관 회의 열고 논의

울산시가 ‘울산, 세계가 머무는 정원의 도시’를 목표로 올해 녹지정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6일 오후 2시 울주군 상북면 영남알프스 산악문화관에서 ‘2026년 녹지정원 분야 시책 및 도심녹화협의체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올해 녹지·공원·산림·정원 분야 주요 정책과 사업별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현안 사업 토의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녹지정원 시책은 ▲도심 속 치유 공간 확충을 위한 생활녹지 확대 ▲시민과 함께하는 대화강 국가정원 운영 ▲시민 삶 속으로 스며드는 생태정원도시 울산 조성 ▲울산의 자연을 담은 치유 명소, 울산수목원 조성 ▲산업과 정원이 어우러진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을 담았다.

시는 녹지 기반 확충으로 시민의 정서 안정과 휴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울산대공원 참여정원 조성 등을 펼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지역 이모저모

하동군

오늘 ‘별천지 차문화관’ 개관

하동군이 9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광안리에 ‘별천지 하동 차문화관(HADONG TEA POCKET)’을 연다.

이번에 조성되는 차문화관은 하동 야생차의 가치와 차 문화를 도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차 문화를 부산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한다.

지상 2층 규모로 꾸며진 이 공간은 층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층에서는 하동 차를 직접 시음할 수 있는 티라운지와 하동 차의 역사·가치를 다루는 상설 전시가 마련되며 2층에서는 하동 차와 다구를 전시·판매하는 티 편집숍과 다양한 티클래스가 진행된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주시

故조영래 상병 유족에 무공훈장

영주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고(故) 조영래 상병의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는 전시 혼란으로 전달되지 못한 공훈을 확인해 유족에게 되돌리는 절차로 지역 보훈 행정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는 지난 6일 조영래 상병의 유족에게 77년 만에 전투 공적이 확인되어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이번 전수는 육군본부에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에 따라 진행됐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남대학교

지난해 60.4% 취업률 기록

경남대학교가 2025년 취업률 정보공시 자료에서 60.4%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부산·울산·경남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뒀다. 졸업생 2500명 이상 기준으로 집계된 이번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번 성과는 실무 중심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대는 ‘학생 성공’을 중심 가치로 전공 교육과 현장 경험을 결합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졸업 후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해 왔다. /경남=이도식 기자

김해시

전국문화체전 2개 준비 박차

김해시가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제5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해시는 2024년 전국체전과 2025년 전국소년체전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총 4만 8000여명의 선수단과 8만명의 관람객을 맞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4월과 6월 개최되는 두 대축전을 한층 발전된 ‘문화체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김해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도내 6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부어라 마셔라’는 옛말… 주류업계, 체질 전환 시험대

저도주·논알코올 선호 흐름 확산
기업, 전통적인 주류 판매구조 흔들
포트폴리오 재편·해외진출 분주

경기 침체와 음주 문화 변화가 맞물리며 주류업계의 실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부어라 마셔라’식 음주대신 저도주·논알코올을 선호하는 흐름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주류 판매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요 주류 기업들은 실적 하락 속에서 포트폴리오 재편과 해외 확장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6일 공시한 2025년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류 사업은 영업손실 28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연간 주류 매출은 7527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82억원으로 18.7% 줄었다.

4분기 기준 소주 매출은 857억원으로 4.3% 감소했고, 맥주(-31.1%), 와인(-10.8%), 스피리츠(-32.7%) 등 대부분의 주종이 역성장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성장한 분야는 캔 하이볼 등 RTD(즉석음



Chat Gpt로 생성한 음주문화 변화 이미지.

용주)로, 41억원에서 49억원으로 매출이 늘었다.

주류 부진은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미쳤다. 롯데칠성음료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은 3조9711억원으로 1.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72억원으로 9.6% 줄었다. 특히 4분기에는 희망퇴직과 충당금 설정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며 영업손실 120억원을 기록했다.

하이트진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2조4986억원으

로 3.9% 줄었고, 영업이익은 1721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408억원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하이트진로는 2022년 2조4976억원, 2023년 2조5202억원, 2024년 2조5992억원, 2025년 2조4986억원 등 매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2022년 1906억원에서 2023년 1239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2024년에는 2081억원까지 회복됐으나 지난해 다시 1700억원대로 떨어졌다.

과거 주류 소비의 대목으로 꼽히던 연말 회식 시즌마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음주를 강요하지 않는 회식 문화가 자리 잡고,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술 없는 모임’이나 저도 음주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외식 경기 위축까지 겹치며 유흥 채널은 직격탄을 맞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간이주점 사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했고, 호프집점도 10% 가까이 줄었다.

주류업계는 변화한 음주 트렌드에 대응해 전략 수정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는 생맥주(KEG) 사업을 정리하고 논알코올·제로슈거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클라우드 논알코올릭’, 제로슈거 과일소주 ‘새로 다래’, RTD 제품군 확대가 대표적이다. 회사 측은 소주·청주·RTD·논알코올을 핵심 축으로 삼아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국내 저성장 국면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시장 공략에도 힘을 쓰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지난해 해외 자회사 매출은 1조5344억원으로 9.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1% 늘었다. 필리핀 법인 PCP

PI를 비롯해 파키스탄, 미얀마 등에서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녹록치 않은 주류 소비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14년 만에 대표이사를 교체하며 새 판짜기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의 지휘봉을 잡은 장인섭 대표는 1995년 진로에 입사한 후 약 30년간 법무, 재무, 경영전략, 대외협력, 커뮤니케이션 등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장 대표는 소주를 앞세워 해외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이트진로는 현재 80여 개국에 자사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진로’ 브랜드를 앞세워 2030년까지 해외 소주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베트남 타이빈성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급증하는 동남아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비를 절감해 현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주류 소비 행태가 크게 변화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음주 문화 자체가 바뀌면서 저도주·논알코올과 글로벌 시장 대응 여부가 향후 실적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카스 “노력의 순간 함께… 성적보다 빛나는 도전 응원”

2회 연속 올림픽 공식 파트너 참여
현지 코리아하우스에 부스 마련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개막했다. 이번 대회에는 93개국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총 11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은 6개 종목에 71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카스는 연초 올림픽 TV 광고 ‘잊혀지지 않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공개하며 올림픽 마케팅에 나섰다. 광고는 메달 성적보다 선수들의 도전과 순간이 남기는 ‘이야기’에 주목했다.

광고는 ‘8년 전 올림픽에서 한국이 몇 위였는지 기억나는 사람?’이라는



2026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 카스, 올림픽 응원 광고 ‘잊혀지지 않을 우리들의 이야기’

/오비맥주

질문으로 시작해, 2018 평창올림픽 ‘팀킴’, 2022 베이징올림픽 박윤기 선수 등 성적을 넘어 감동을 남긴 장면들을 조명한다. ‘성적은 잊혀져도 이야기는 계속된다’는 문구로 마무리되며, 도전

과 유대, 우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카스는 2024 파리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 참여 중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화제의 선수와 주요 순간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 파리올림픽 당시 펜싱 오상욱 선수의 금메달 직후 실제 경기 장면을 광고에 즉각 반영한 사례처럼 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올림픽스토리’의 주인공에게 축하와 응원을 전해왔다. 오상욱 선수는 카스 라이트 모델로 발탁돼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파트너십을 이어간다.

카스는 전·현직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카스 올림픽인 메달 키트’를 전달하고, 전진 국가대표 선수촌과 밀라노 현지 코리아하우스에 부스를 마련해 선수단 응원에 나선다.

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은 “선수들의 경기 결과뿐 아니라 훈련 과정과 노력의 순간까지 함께 조명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

외국인 프로모션 강화

체험형 콘텐츠 통해 관광객 유치

롯데백화점이 오는 13일부터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2월 15~23일)을 맞아 중국인 관광객(유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이번 황금연휴 기간, 단순 쇼핑을 넘어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형 프로모션으로 승부수를 띄운다.

우선 한국의 전통미를 담은 ‘K-굿즈’ 마케팅을 펼친다. 본점·잠실점·부산본점에서 당일 30만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 고객에게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굿즈 브랜드 ‘뮤츠(MU:Z)’의 ‘신라의 미소소스볼 세트’를 선착순 증정한다.

‘K-뷰티’와 ‘K-패션’ 체험 콘텐츠도 대폭 강화했다. 본점에서는 중국 대표 SNS 샤오홍슈 이벤트를 통해 ‘정샘물 인스피레이션’ 메이크업 이용권을 제공하며, 입생로랑 뷰티 구매 고객에게는 전용 파우치 등을 증정한다. 또한 본점 ‘키네틱 그라운드’에서는 인기 패션 브랜드 ‘세터’의 팝업스토어를 열고 아이돌 라이즈(RIIZE)와 협업한 봄 컬렉션을 선보인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숫자 ‘8’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도 눈길을 끈다. 13일부터 22일까지 패션·뷰티 상품을 50만원 이상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8%’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증정한다. 특히 본점에서는 상품권을 붉은 봉투인 ‘홍바오’에 담아 전달해 명절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박상우 마케팅부장은 “사상 가장 연휴로 많은 유커의 방한이 예상된다”며 “단순 할인을 넘어 K-컬처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프로모션으로 한국 대표 쇼핑 명소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J제일제당, ‘비비고존’ 운영… 한식의 맛 알린다

‘코리아하우스’ 타이틀 스폰서 참여

CJ제일제당이 2026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밀라노에서 한국 식문화 확산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KoreaHouse)’에 ‘비비고존(bibigo Zone)’을 열고 방문객들에게 K-푸드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 최대 규모 행사에서 방문객들에게 비비고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며 유럽 식품사업 확대에 박

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CJ그룹이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 ‘코리아하우스’는 밀라노 중심부의 역사적 건축물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 만들어져 지난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과 함께 K-푸드와 K-컬처 등을 알리는 ‘국가 홍보관’ 역할을 한다.

CJ제일제당은 야외 테니스코트에 마련된 ‘K-컬처 존’에 서울의 강남편의점을 모티브로 부스를 열고, 현장에서 비비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는 방문객에게 유럽 현지에서 판매중인 ‘비비고 볶음면’ 2종(K-BBQ맛, 김치맛)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부스를 방문하는 현지 소비자들과 유통채널 바이어들이 볼 수 있도록 만두, 치킨, 김, 떡볶이, 김치 등 다양한 비비고 제품을 함께 선보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유통채널 신규 입점도 모색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많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비비고와 K-푸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푸드 대표



밀라노 코리아하우스 ‘비비고 존’ 부스에서 외국인 방문객이 제품을 살펴보는 모습.

/CJ제일제당

주자로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한식의 맛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결제망 거부’ 티몬 오픈 5개월째 멈춰… 오아시스 ‘발동동’

리스크 우려에 카드사 승인 미뤄
플랫폼 안내 등 셀러 재기 노력
‘탈쿠팡’ 대안으로 반등기회 놓쳐

1세대 이커머스 티몬 재개장이 5개월째 멈춰 섰다. 지난해 6월 오아시스마켓 이파산 위기였던 티몬을 인수했지만, 카드사들이 결제망 제공을 거부하며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인수대금과 플랫폼 재건 비용으로 수백억원을 쏟아부은 오아시스마켓은 이렇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달 8일 기준 티몬은 웹사이트와 앱 접속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티몬 홈페이지에는 쇼핑 화면 대신 재오픈 연기를 알리는 안내문만 게시돼 있다. 티몬 측은 안내문을 통해 “영업 재개 소식에 제휴 카드사, 관계 기관을 통해 피해자 들께서 많은 민원이 집중 제기됐다”며 “다시 부득이하게 오픈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오아시스마켓은 지난해 6월 티몬을 인수하며 인수대금 116억원을 투입했



오아시스마켓 강남점 전경

/오아시스마켓

다. 퇴직금 지불 및 플랫폼 시스템 재구축 등 정상화를 위해 티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5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기도 했다. 당초 오아시스마켓은 지난해 9월 10일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 파트너사와 100만 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했으나, ‘티메프 사태’ 학습 효과로 정산 리스크를 우려한 주요 카드사들이 가맹 승인을 미루면서 모든 계획이 멈

춰섰다.

티몬 재개장이 미뤄지며 당초 티몬에 입점할 예정이었던 셀러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오아시스마켓은 가격 상생안을 내걸며 기존 15% 안팎이던 판매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인 3~5%로 대폭 낮추고, 구매 확정 익일 대금을 지급하는 ‘빠른 정산’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티몬이 예정대로 열렸다면 시장 신

뢰를 회복하고 자금난을 겪은 피해 셀러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었지만, 미뤄지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피해 판매자들과 이미 업계 최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준비를 마쳤으나 오픈이 안 돼 안타깝다”며 “준비했던 셀러들에게 다른 플랫폼 판로를 안내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이 멈춘 사이 탈팡(쿠팡 이탈) 수혜를 놓치고 있다는 점도 뼈아프다. 최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G마켓 등 경쟁 이커머스가 반사이익을 독식하는 상황이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월 쿠팡 앱 사용자 수는 3318만명으로 전월 대비 3.2%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역성장 흐름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경쟁사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이용자 수가 10% 늘어나며 2달 연속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탈팡족의 대안으로 자리 잡으며 실적 반등 기회를 잡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

계자는 “티몬이 정상적으로 재개장했다면 런칭 초기 화제성이 집중되는 만큼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마켓 입장에서선 투자금 회수는 커녕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비한 셈이다.

티몬 사태 여파는 유통업계 전반의 인수합병(M&A)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건전한 기업이 인수해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약속했음에도 금융권이 문턱을 높이자,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 발란 등도 신뢰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직면했다. 잠재적 원매자들이 금융권의 비협조 가능성을 우려해 인수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재오픈이 언제까지 지연될 지 모르지만, 순리대로 카드사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라며 “재오픈이 성사된다면 일부 대형 플랫폼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된 현 이커머스 시장에서 셀러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대안이 되어 건전한 시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설 명절, 고품격 와인으로 진심 전해요”

나라셀라, 다채로운 라인업 선보여
‘몬테스’, 누적 1700만 병 팔려

나라셀라가 병오년 새해 설을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이번 특집에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스테디셀러부터 와인 애호가를 위한 고품격 화이트 와인, 그리고 명절의 흥을 돋을 프리미엄 사케까지 다채로운 라인업을 준비했다.

먼저, 국내 누적 판매 1700만 병을 돌파하며 ‘국민 와인’으로 자리매김한 칠레의 몬테스가 있다. 특히 최근 출시한 ‘몬테스 ID 카버네 소비뇽’은 몬테스의 철학과 정체성(Identity)을 고스란히 담아낸 제품이다. 잘 익은 붉은 과실의 풍미와 부드러운 탄닌이 조화를 이루며, 갈비찜이나 불고기 등 양념이 가미된 한국 정통 명절 음식과 완벽한 매리아주를 보여준다. 호불호 없는 맛으로



나라셀라 설 선물세트

/나라셀라

격식 있는 자리나 친지 방문 선물로 제격이다.

격조 높은 화이트 와인을 찾는다면 나과 밸리의 전설 ‘마이크 그르키치’가 만든 ‘그르키치 힐스 에센스 소비뇽 블랑’을 추천한다. 1976년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와인 1위를 차지하며 세상

을 놀라게 한 거장의 손길이 닿은 와인이다. 이름처럼 소비뇽 블랑의 정수(Essence)를 담아냈으며, 신선한 산도와 우아한 미네랄리티가 압권이다. 명절에 즐기는 각종 전이나 생선 요리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려 주는 품격 있는 선물이다.

와인 외에 좀 더 특별한 주류 선물을 고민한다면 일본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만난 사케 ‘메이조 준마이다이긴조 마루와라이’를 추천한다. ‘마루와라이(동근 미소)’라는 이름처럼, 새해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환하게 웃기를 바라는 축복의 의미를 담았다. 정미율 50%의 준마이다이긴조로, 특유의 향긋한 과실향과 깔끔한 목 넘김이 일품이다. 고급스러운 패키지 덕분에 어르신이나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선물로 인기가 높다. 해당 선물세트는 전국 코스트코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로수바미브’ 작년 원외처방액 1000억 돌파

유한양행, 5년간 성장률 약 13%

유한양행은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바미브’가 국내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원외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가 집계한 원외처방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로수바미브는 2025년 국내 처방 실적으로 총 1022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 출시 후 10년 차에 접어든 로수바미브의 성장률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약 13% 수준이다.

로수바미브는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성분을 처방한 복합제다. ▲10/2.5mg ▲10/5mg ▲10/10mg ▲10/20mg 등 다양한 용량을 갖춰 환자사와 의료진 모두의 치료 선택지를 넓혔다.

특히 로수바미브는 임상을 통해 70세 이상 고령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환자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 고강도 로수바스타틴 단독요법에 비해 스타틴 관련 근육 이상 반응 및 신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으면서도, LDL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유한양행은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로수바미브 후속 임상을 진행해 왔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진료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 향후에도 연간 100만 건 이상에 달하는 처방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00세 시대에 적극 대비해 고령 환자의 지질 및 대사 이상 질환을 종합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딸기케이크 40만개 넘게 팔렸다

시즌 한정 메뉴 인기로 연장 판매

스타벅스 코리아가 1인 가구 증가와 세분화되는 디저트 수요에 맞춰 매 시즌 새로운 미니 롤케이크를 선보이며 관련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기념일은 물론 일상적인 디저트로 롤케이크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며 부담 없는 크기의 미니 롤케이크가 새로운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 겨울 선보인 ‘딸기 프레지에 케이크’는 1~2인이 즐기기 좋은 적당한 사이즈와 딸기가 장식된 화려한 비주얼, 선물용으로도 좋은 전용 패키지 포장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현재까지 판매 40만 개를 넘어섰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당초 크리스마스 시즌 한



스타벅스 미니 롤케이크는 케이크 판매 순위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정으로 선보였던 해당 케이크의 판매 기한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밸런타인데이 시즌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딸기 가나슈 프레지에’도 빠진 사이즈로 기념일은 물론 데일리 디저트 케이크로도 주목받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신원선 기자

‘헌터라제ICV’ 페루 품목허가 신청

GC녹십자, 뇌실 내 투여 제형 구축

GC녹십자는 페루 의약품관리국에 헌터중후군 치료제 ‘헌터라제ICV’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헌터라제ICV는 환자 머리에 삽입한 디바이스를 이용해 뇌실 내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약물이 뇌 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도달해 인지 능력 상실, 뇌 병변,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상까지 개선할 수 있다.

헌터중후군 중증 환자의 약 70%에서

는 중추신경 손상이 발생하는데, 기존 정맥 주사의 경우, 약물이 뇌혈관장벽(BBB)을 투과하지 못해 치료에 한계가 있다.

GC녹십자는 뇌실 내 직접 투여(ICV) 제형을 독자 구축했고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 헌터라제ICV는 2021년 일본, 2024년 러시아에서 각각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실제 일본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헌터라제ICV는 중추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 물질인 해파란 황산을 유의

미하게 감소시켰고 환자의 지적·신체적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발달 연령이 개선되거나 안정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5년간 장기 추적 관찰에서도 해파란 황산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고 인지 기능 퇴행이 지연되거나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GC녹십자는 향후 동남아, 중동·중남미 지역 등으로 허가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GC녹십자 이재우 개발본부장은 “헌터라제 ICV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 치료제로 희귀질환 분야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글로벌 공급을 지속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NOL 티켓 평점 9.9 공연 만족도 100%! |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헝키쇼

2025.11.28 ~ OPEN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본 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

나이 상관 없이 하나될 ㅋㅋ

관객 참여로 더 큰 웃음!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티켓 바로가기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병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을 날정도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삼표그룹, 서울숲서 '기업동행정원' 만든다

삼표그룹이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숲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한다. 삼표그룹 주력 계열사 삼표산업은 지난 6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삼표그룹



삼성바이오, 제품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완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본사에서 '제품탄소발자국(PCF) 시스템에 대한 제3자 검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제1바이오캡슐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을 대상으로 노르웨이 소재 글로벌 인증기관 데트 노르스케 베리타스(DNV)가 수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스템임플란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일 치의학교육연구소 '교보재개발실험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인증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표준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하나금융그룹, 설 맞이 '만두 빚기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이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 계층인 독거 어르신을 위한 '만두 빚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운 겨울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사자들이 정성껏 빚은 손만두는 ▲떡국떡 등 풍성한 명절 먹거리와 함께 '행복상자'에 담겼다. /하나금융그룹

르노코리아

설 안전운전 위한 무상점검

르노코리아는 장거리 운행이 많은 설 연휴 기간에 안전 운전 지원을 위해 전국 직영사업소 및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유상 수리 고객에게는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르노코리아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국내 자동차 제작사 구정맞이 무상 점검 행사' 공동 일정보다 무상 점검 기간을 더 확대해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차량 점검을 원하는 고객은 행사 기간 동안 전국 7개 직영사업소 및 364개 서비스 네트워크를 방문하면 무상으로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단편·장편 영화로 '브랜드 소통' 고도화

장편 '베드포드 파크' 선댄스 수상
손석구·최희서 제작·주연 참여
소니 픽처스 클래식 배급 계약

현대자동차가 브랜드 소통 방식을 단순한 광고의 개념을 넘어 창의성과 혁신성으로 확장하며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투자자로 참여한 첫 독립 장편영화 '베드포드 파크'가 제42회 선댄스 영화제 미국드라마 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중 '데뷔장편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배우 손석구와 최희서가 제작자 및 주연으로 참여한 '베드포드 파크'는 뉴저지를 배경으로, 이민자 가정의 고립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어온 '오드리'(최희서)가 어머니의 자동차 사고를 계기로 전직 레슬링 선수 '일라이'(손석구)를 만나 삶의 상처를 치유해 가는 휴머니즘 멜로 드라마다.

이번 작품은 현대차가 단순 후원이



현대차 후원 영화 '밤낚시' 스틸컷.

/현대차

아닌 투자자로 참여한 첫 장편영화로, 단편영화 '밤낚시'에 이어 배우 손석구와 두 번째로 협업한 프로젝트다.

현대차는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첫 작품으로 독립 장편영화를 선택함으로써 휴머니즘의 가치가 담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2026 선댄스 영화제 수상을 기반으로, '베드포드 파크'는 소니 픽처스 클래식과 글로벌 배급 계약도 체결

메트로미디어 임직원, '라파엘의 집' 후원

장애아동 단기거주시설 방문
정기후원 신청서 45명 제출
이장규 대표 "작은 정성, 보탬 되길"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라파엘의집에 정기적인 후원을 하기로 했다.

메트로미디어는 지난 6일 시각 중박·중증 장애아동 단기거주시설 라파엘의집을 방문해 공기정화기와 임직원 45명의 정기 후원신청서를 전달했다.

메트로미디어 임직원의 한마음 한 뜻으로 마련된 이번 라파엘의집 후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된다.

라파엘의집은 1986년에 설립된 곳으로, 13명의 시각 중박·중증 장애아동이 단기거주시설이다. 라파엘의집은 요양교사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 등이 매일 사랑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아이들과 옹기종기 살아가는 곳이다.

라파엘의집은 성장기의 장애아동들에게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재활, 의료재활, 특수교육 연계지원 프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중박·중증 장애아동 단기거주시설 라파엘의 집을 방문한 메트로미디어 이장규 대표(왼쪽)가 라파엘의 집 김종민 원장과 사랑의 나눔 행사 물품 전달식을 가지고 있다. /메트로미디어

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보편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메트로미디어 임직원들의 이번 정기후원이 라파엘의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금 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정의 손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한진, 결식아동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

후원금 전달하고 반찬 만들기 봉사

한진이 월드비전과 함께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을 진행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진은 글로벌 해외 직구 플랫폼 '훗타운(HOOT TOWN)' 등 자사 서비스 수익금 일부로 조성한 후원금을 지난 6일 월드비전 서울서부사업본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후원금은 월드비전의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지원 사업인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주 5일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진은 단순 기금 전달을 넘어 임



한진은 월드비전과 함께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을 진행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함께 펼쳤다. 같은 날 한진 임직원들은 결식아동들을 위해 제공될 도시락 반찬을 직접 조리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하는 등 현장 봉사에 참여하며 나눔의 진정성을 더했다. /김승호 기자

하기도 했다.

현대차의 콘텐츠 마케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공개된 영화 밤낚시는 현대차와 이노션이 공동 기획한 브랜드 최초의 단편영화로 전가차 충전소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독창적인 영화적 연출을 통해 구현했다.

빌트인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디지털 사이드 미러 등 아이오닉 5에 내장된 카메라의 시선으로 영화를 담아

이노비즈協, 아세안 녹색혁신 협력 강화

인니서 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 나서

이노비즈협회가 아세안(ASEAN)에서 기업간 녹색혁신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이노비즈협회는 정광천 회장 겸 아셈중소기업친환경센터(ASEIC) 이사장(사진)이 8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녹색혁신 협력센터(GICC) 개소식에 참석하고 아세안 지역과의 녹색혁신 정책·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ICC는 기존 기업 입주(BI)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녹색혁신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거점이다.

LG, 'AI 청소년 캠프'서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학교서 2박 3일 교육 진행

LG가 미래의 AI 리더를 꿈꾸는 새싹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LG는 지난 5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2박 3일 교육을 진행하며 'LG AI 청소년 캠프' 3기 일정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LG AI 청소년 캠프'는 LG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진행하는 교육 사회공헌사업이다.

LG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

내 감각적인 방식의 연출 기법을 보여줬다.

북미에서 열리는 최고의 장르 영화 축제 중 하나인 몬트리올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에서 '최고 편집상'과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 2025 엔터테인먼트 부문 그랑프리 및 필름 부문 은사자상을 수상하며 차별화된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와 이노션은 칸 국제 광고제의 공식 초청을 받아 '광고는 덜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라'(Cut the Ad. Roll the Show)를 주제로 현지에서 공식 세미나도 개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소비자의 일상에 새로운 경험과 영감을 제공하는 '문화적 동반자'가 되는 것에 진정성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안에서 현대차 브랜드를 소통하는 콘텐츠를 다양한 형식과 시도로 꾸준히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광천 회장은 방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 및 협동조합부 등 주요 정부기관과 면담을 갖고, GICC를 중심으로 한 협력 프로그램 발굴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현지 스타트업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 기업 간 협력 및 매칭 사업 기반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11일 열리는 GICC 개소식에서는 ASEIC 이사장 자격으로 환영사를 통해 GICC의 운영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공식적으로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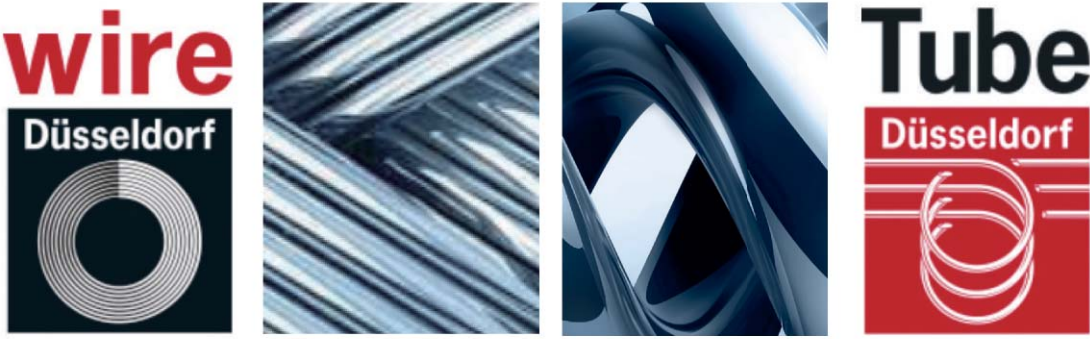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승진 △조사관리국장 이민경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현기 △북지통계과장 류창진 △국가데이터연구원 연구기획실장 백지선 △국가데이터연구원 데이터방법연구실장 양동희 △동남지방데이터청장 채관병

부음

▲김재혁(중앙일보 전 주미특파원, 삼성생명 전 홍보실장 전무)씨 별세, 김정욱(삼성물산 건설 부문 해외사업부장 부사장)씨 부친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2-3410-3151



COME&CONNECT

2026년 4월 13일 -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시찰단 모집

- 만데스만의 그린스틸을 비롯한 AI·로봇 연계한 생산관리 회사 탐방
- AI 응용 자동 용접·Pipe 제조사·용접 메쉬 철근가공, 전기강판, 클래드 파이프
- 탄소국경제도(CBAM)·유럽 관세정책을 꿰뚫어 보는 최신 이슈 경청(국제 포럼/세미나)
-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

참가일정

1.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월) ~ 3월 6일(금)

2. 참가비용
5,990,000원

-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변경시 에스앤마일즈 문의)
- 숙박은 4성급 호텔 2인1실 기준 (호텔 싱글 차지 610,000원)

3. 신청방법

- 2026년 3월 6일(금)까지 당사 E-mail :smkang@snmiles.com으로 여권 사본 및 핸드폰 번호 송부 요망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주요일정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DAY 1 4월 12일 일요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KE 945 전용차량	8:00 10:50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개별 탑승수속 인천 국제공항 ICN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FRA 도착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하여 뒤셀도르프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HOTEL : Ramada By Wyndham Essen 혹은 동급	중 : 기내식 석 : 현지식
DAY 2 4월 13일 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DEUTSCHE MESSE-전시회 설명)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3 4월 14일 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티센그룹 머티리얼 *SMS그룹, Swiss Steel그룹 1. 만네스만 그린스틸 2. ECO-Metal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제조혁신기업 3. EVG, Butting 그룹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4 4월 15일 수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DAY 5 4월 16일 목요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9:00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Frankfurt Airport-Neu-Isenburg 혹은 동급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DAY 6 4월 17일 금요일	프랑크푸르트	KE 946		호텔 조식 후 프랑크푸르트 문화 탐방 -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의 중심 광장 광머광장 - 황제의 대관식이 치뤄졌던 고딕 양식의 성당 카이저 돔 - 3개의 동으로 구성된,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현대 미술관 - 독일 국민 의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된 파울교회 -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변화한 자일거리 - 뢰머광장과 박물관 지구에 있는 철조 소제의 아이젤너 다리 -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대성당 공항 이동,개별 탑승 수속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기내 숙박)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자유식
DAY 7 4월 18일 토요일	인천		17:10	인천 국제공항 ICN 도착	조 : 기내식 중 : 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 및 현지업체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법정 손해배상 범위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지식거래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인 원고는 자신의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관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있어야 상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손해 발생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

자가 손해 입증의 어려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취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정보주체인 원고로서는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된 상태로 유출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정보가 없는 한 유출된 이메일 주소만으로는 정보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해당 사이트는 지식공유 사이트로서 가입자의 유형이 매우 폭넓고 다양해, 가입 시기나 이용내역 등이 함께 유출되지 않은 이상 이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자의 성향이나 수요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해 정보주체에게 사생활·명예의 침해나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할 위험성은 낮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마케팅 등 영

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확산될 가능성도 낮았다.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이후 2년 이상 스팸메일 증가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는 사고 직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이버경찰청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원고에게도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하며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원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법정손해배상은 손해 입증이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보호 기능과 책임 제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사건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손해 입증을 완화하면서도, 실제 손해가 없음을 기업이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남용을 방지했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



김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세계적인 제도화의 문턱에 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의 자체적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제도화를 통해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련한 규제도 확대했다. 기업 가치를 담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흐름이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물론 후속 법령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뼈대가 될 '기초법'도 마련되지 않았다. 감독기관 간에 견해차가 지속되며 관련 입법

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인 디지털자산거래소의 입장에 정부와 달라서다.

정부는 최근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의 뼈대가 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논의하면서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은행 지주사의 지분 한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으로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모두 이같은 대주주 지분 제한 요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래소들이 인수·합병 등을 활용해 차세대 경쟁력을 제고할때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법령은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인데,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분을 처분한다면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

가받을 수도 있다.

다만 거래소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에 편입할 때 현행 거래소의 규제나 안전장치로 불충분하다고 느껴서다. 거래사고, 암호화폐 탈취 등은 투자자들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불신하는 원인이다.

최근에는 거래소 직원의 실수로 이벤트 보상 2000원이 '2000BTC'로 지급되는 사고가 있었다.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지급한 만큼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거래소는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한 순간의 착오로 2000원이 1900억원으로 둔갑했다. 실제 출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1900억원에 달하는 '매도 인증샷'을 목격한 투자자의 신뢰는 후퇴했다. 경영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asj123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9일 (음 12월 2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문서와 관련된 부분을 주의하세요. 60년생 투자나 거래는 미루는게 좋습니다. 72년생 부부,연인운이 좋으니 가족, 연인과 함께 하세요. 84년생 꼭 가야 한다면 남쪽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소

49년생 형제,친구와 함께 일을 도모하면 매우 좋습니다. 61년생 거래를 하면 이득이 있습니다. 73년생 명예가 오르니 하루이니 잘 활용하세요. 85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모두 좋은 하루입니다.



호랑이

50년생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62년생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하세요. 74년생 가족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6년생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 도 따르는데 좋습니다.



토끼

51년생 여행을 가도 실속이 없고 피곤합니다. 63년생 문단속과 물건 관리에 유의하세요. 75년생 배우자나 연인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염

52년생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이 풀리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동료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76년생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결과가 좋습니다. 88년생 싸우던 이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뱀

53년생 여행하기 좋은 하루입니다. 65년생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접근해 보세요. 77년생 건강과 물관리에 좀 더 신경써세요. 89년생 혼자 생각보다는 동료와 의논하는게 좋습니다.



말

54년생 노력에 대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66년생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세요. 78년생 일보다는 가정을 먼저 돌보세요. 90년생 큰 일을 위해 작은 손실은 감수하세요.



고양이

55년생 외출보다는 집에서 쉬는게 좋습니다. 67년생 동업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진행하는 일에 실속이 없으니 대안이 필요합니다. 91년생 약속을 지키면 명예가 크게 옵니다.



원숭이

56년생 주변 사람으로 인해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68년생 고집보다는 조언을 듣는게 좋습니다. 80년생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일을 그리칠 수 있습니다. 92년생 과한 자신감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닭

57년생 내가 싫은 일은 남도 싫은 법입니다. 69년생 여행이나 외출을 하면 운이 좋습니다. 81년생 재물운이 있으니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93년생 관심을 갖던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개

58년생 힘들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70년생 노력에 대한 과실이 매우 달콤합니다. 82년생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니 기쁩니다. 94년생 본인 생각대로 추진하는게 좋습니다.



돼지

59년생 고민은 많으나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71년생 지금보다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83년생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복이 있습니다. 95년생 옛 친구에게 연락하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방생의 메시지

사로잡힌 동물을 놓아준다는 뜻의 방생은 불교 의례이다. 불교의 핵심 계율인 불살생과 비폭력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행위로 단순히 동물을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대하는 겸허함과 참회의 마음이 함께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에서 비롯한다. 인간과 동물·식물과 자연 모두가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관점에서 다른 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는 곧 자기의 삶을 해치는 행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계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사회적 메시지가이기도 하다. 방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는 장면을 먼저 생각한다.

그렇게 된 것은 이동과 방류가 쉬운 물고기가 방생의 상징처럼 됐지만, 불교가 말하는 것은 특정 동물에 국한된 의식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향한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악지를 이용하지 않으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려는 생활방식도 모두 방생의 연장선에 있다. 현대 사회에서 방생의 의미는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개발이나 과잉 생산이 미덕인 현대에서 방생은 단지 의례로 그치지 말고 삶의 태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환경을 생각하며 소비해야 하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악한 사람 착취하지 않기 등의 사회적 노력 또한 현대적 방생이라고 할 만하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생명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 타인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선택 하나하나가 모두 방생의 실천이다. 불교가 방생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지속되고 그 시작은 마음과 일상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5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5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1				5		
			4			2		
	2							4
6		8					7	
4								9
	1					4		6
8							2	
		3			6			
		9				6		1

결합형스도쿠

153문제

스도쿠 3650

결론스도쿠110

초하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8	9	7	9	8	6	2	2
8	7	2	9	2	6	8	9	1
9	2	6	8	2	1	7	9	8
9	8	7	2	6	8	9	1	2
6	9	1	8	9	2	2	8	7
2	2	8	1	7	9	8	6	9
7	1	8	9	8	9	2	2	6
8	6	2	2	1	7	9	8	9
2	9	9	6	8	2	1	7	8

8	6	2	2	9	7	1	9	8
2	9	8	9	1	6	2	8	7
7	1	9	8	2	8	6	2	9
2	8	7	6	2	9	8	9	1
9	9	1	8	7	8	2	6	2
8	2	6	1	9	2	9	7	8
1	7	2	1	8	9	8	9	6
6	2	8	9	8	2	7	1	9
9	8	9	7	6	1	8	2	2

서울대·연세대 등록포기 줄었지만… “대기업보다 의대”

서울대 최초합격 107명 포기
연대 시스템반도체 84% 이탈
“이공계 인력수급 정책 보완을”

서울대와 연세대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지만, 대기업 계약학과보다 의대를 택하는 흐름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의 2026학년도 정시 1차 추가합격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정시 최초합격자 중 107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전년 124명보다 17명(13.7%) 감소한 수치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86명, 인문계열 17명, 예체능 4명이다.

자연계열 등록포기 인원은 86명으로 전년 95명보다 9명(9.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축소로 의대 중복합격 인원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 76명보다는



대기업 계약학과보다 의대를 택하는 흐름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투이미지

여전히 많은 수준으로, 서울대와 의대에
동시 합격할 경우 의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로 보면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 인원은 ▲2022학년도 66명 ▲2023학년도 88명 ▲2024학년도 76명 ▲2025학년도 95명 ▲2026학년도 86명으로, 의대 정원 확대 시기인 2025학년도에 급증한 뒤 소폭 감소했지만 증원

이전 수준으로는 회귀하지 않았다.

학과별로는 ▲전기정보공학부 10명 ▲산림과학부 8명 ▲간호대학 6명 ▲첨단융합학부 5명 ▲건축학과 4명 등 27개 학과에서 86명의 등록포기가 발생했다. 반면 서울대 의예과는 등록포기 인원이 0명으로, 지난해 1명에서 더 줄어 의대 선호의 상징적 지표로 나타났다.

인문계열 등록포기는 ▲경영대학 5명

▲경제학부 2명 ▲인문계열 2명 ▲학부 대학 2명 등 10개 학과에서 17명 발생했다. 전년 27명보다 10명(37.0%) 감소한 수치다.

연세대는 정시 최초합격자 중 435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 446명보다 11명(2.5%) 감소했다. ▲자연계열 254명(모집정원 대비 32.4%) ▲인문계열 176명(24.2%) ▲예체능 5명(2.9%)이다.

그러나 대기업 계약학과에서의 이탈은 오히려 확대됐다. 연세대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32명 합격생 중 27명, 84.4%가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25명 중 17명(68.0%)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연세대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인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도 7명 중 과반수인 4명가 등록을 포기해 전년 28.6%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연세대 의예과는 18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 12명보다 6명 증가했다. 상당수는 서울대 의대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으로 추정된다. 자연계열에서는 ▲전기전

자공학부 48명 ▲첨단컴퓨팅학부 26명 ▲진리자유학부 22명 등 27개 학과에서 254명의 이탈이 발생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등록포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의대 정원 축소에 따른 일시적 효과일 뿐, 의대 선호 현상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대와 반도체 등 대기업 계약학과에 동시 합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 의대를 선택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대 모집정원이 줄었음에도 서울대·계약학과 대비 의대 우위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확대 논의까지 맞물릴 경우 의대 쏠림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대기업 계약학과와의 인재 확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공계 인력수급 구조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지역 학교에 탄소중립 자가진단 도입

서울시교육청, 실천 수준 지속 점검
중점학교 44교 지정하고 집중 지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6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하고, 중점학교 44교를 지정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시행해 온 '모든 학교에서의 탄소제로 실천'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학교가 스스로 탄소중립 실천 수준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립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진단-계획-실천-환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26년에는 '학교 탄소중립 실천 자가진단 도구'를 새롭게 도입한다. 모

든 학교는 이 도구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해 '우리학교 실천 과제'를 선정, 연중 실천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 도구와 함께 실천 안내서를 모든 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44교를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중점학교에는 실제 에너지 사용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자료가 제공되고, 전담 연구원이 매달 학교를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교별 탄소 감축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점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냉난방기 관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된다. 학교 내 냉난방기 사용 현황을 실시

간으로 확인하고 ▲피크전력 및 대기전력 관리 ▲불필요한 냉난방기 사용 최소화 등을 추진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5년 '탄소제로 실천 중점학교' 33교 운영 결과, 2024년 대비 약 68,189kgCO₂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학교의 실제 탄소 배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실천·컨설팅이 현장의 실질적 탄소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추진을 통해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이 행사나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2050 서울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학교 현장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시흥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종합 점수 94.46점 기록

시흥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종합점수 94.46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평가군 평균(84.93점)보다 9.53점 높은 점수로,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의미 있는 성과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정부 업무평가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제도 운영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수준을 기록했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분야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기적인 민원 편람 점검과 누



리집 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상담 제공 등 체계적인 민원행정 운영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러한 노력은 '민원 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분야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며,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앞으로도 작은 불편까지 살피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경기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수립

13~18일까지 시외버스 증차 등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한 설 귀성길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2026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외버스 증차, 도로정보 실시간 안내, 긴급도로 복구 체계 구축 등 적극 대응한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수송능력 확대 ▲교통량 분산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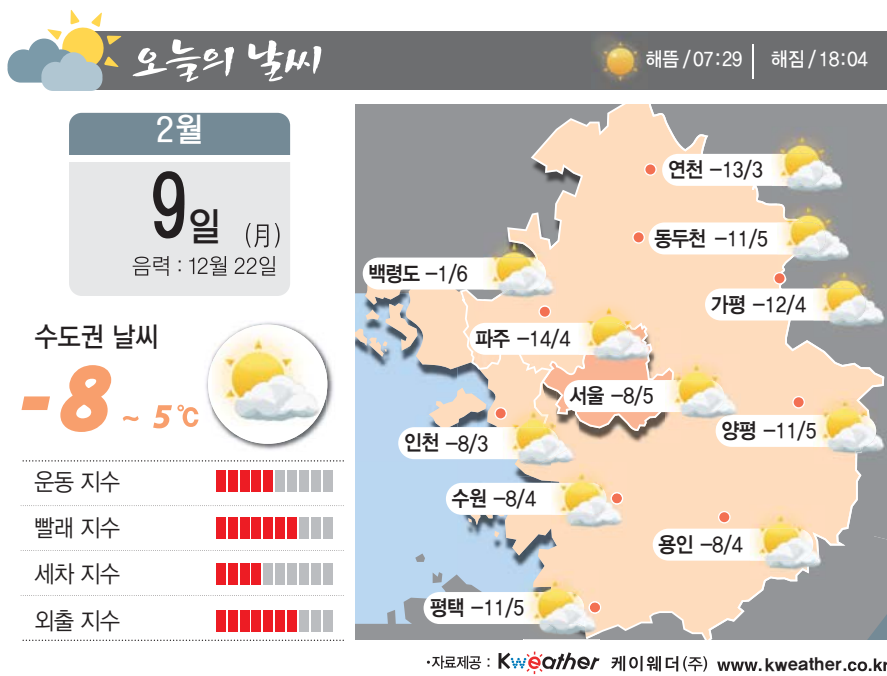
의 증진 ▲교통안전 관리 강화 ▲대설 발생시 대응대책 추진 등 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4개 권역에 38개 노선을 대상으로 82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를 12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막차 1시간 연장 운행 등, '의정부경전철, 7호선(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은 2월 17일

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1시까지 심야 연장운행한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 36대를 통해 우회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경부·영동 등 5개 주요 고속도로는 정체 발생 시 지방도 311호선 등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9개 국도에 대해서는 지방도 309호선 등 주변 14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일본의 중의원(하원) 선거 8일 투표 시작… 465석에 1200여명 출마

/사진 뉴시스

▲이란, 오만회담 후 미국과 외교관계 재개 예상.. 핵·미사일 규제는 일축

▲1200억 벌었는데 ‘동정 없다’…중국도 돌아선 구아이링

▲‘기자 300명 해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대표 사임

▲“트럼프 평화위, 오는 19일 워싱턴서 정상회의”

▲중국군 “남중국해 닷새간 정례 순찰…역외 개입이 평화 훼손”



주류업계
바뀐 음주문화에
돌파구 찾는다
L1

metro®

Life

티몬 재개장
5개월째 멈춰
오아시스 발동동
L2



새벽기차 타고 현장 오가는 ‘청년 정책가’

“좋은 정책은 萬을 살린다… 정치로 ‘공정한 사다리’ 복원”



새벽을 여는 사람들

정책연구단체 ‘Team.Fe’

송 서울 대표

“잘 만든 정책 하나가 천(千)을 먹여 살리고, 만(萬)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송서울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는 <메트로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와 당에서 속해 청년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설명하며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굴해내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추진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도 부연했다.

**청년정책 전문가로 보수진영서 활약
윤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경험 쌓아
청년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로
창업·노동·교통 등 청년정책 발굴 앞장**

◆새벽 기차 타고 목포서 올라오는 도전적 청년

송서울 대표의 고향은 전남 목포다. 그렇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친(親)민주당세가 강한 곳이다.

송 대표는 특이하게도 목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보수 진영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정책 전문가’다. 정치적 성향을 결정한 배경을 묻는 질문을 수백 번도 넘게 들어왔다는 송 대표는 “경험과 관찰의 결과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답을 대신했다.

목포 시내에 은은하게 퍼지는 새벽 공기를 즐긴다는 송 대표는, KTX 목포발(發) 새벽기차 예매 전쟁을 뚫고 서울을 오가는 ‘체력왕’이기도 하다.

◆당정에서 청년정책 설계 참여하며 꿈 키워

송서울 대표의 본격적 청년 정책 활동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작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국민의힘 부대변인, 국민의힘 쏠소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당정에서 두루 경험을 쌓고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송 대표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에 큰 의미를 뒀다. 당시 청년정책조



송서울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

정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과 더불어 향후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였다.

송 대표는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많은 회의 끝에 좋은 정책을 제안해 올려도 반영되기까지 행정 프로세스 상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행정 여건상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출범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정치의 매력을 실감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정책을 논의하는 속도나 당의 공식 발표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며 “분위기가 사뭇 달라 정부 위원회의 회의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놀랐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점은 비밀이었지만, 이제는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으로도 활동하며 모빌리티 분야에서 ‘전통동

보드’ 관련 안전 사고 방지 대책을 다뤘는데, 당시에 정치권에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전동 킥보드 금지법이 발의되는 것을 보며 “괜히 반가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청년이 들러리 아닌 ‘실무 파트너’ 돼야

송서울 대표는 청년정책연구단체 Team.Fe의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Fe’는 주기를 표에서 ‘철’을 의미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철’같은 사람이 되어, ‘철’같은 정책을 발굴하자는 뜻이다.

‘Team.Fe’엔 청년정책, 창업, 노동, 교통 등에 관심이 높고, 정부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송 대표는 “주로 연구한 것은 17개 시도의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이라며 “최근에는 전라남도 청년정책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전라남도 청년정책은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왜냐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청년정책은 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의 청년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년이란 집단을 단순한 연령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실무적 주체’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출범한 국민의힘 쏠소리위원회 출범식 때도 장 대표께 ‘국민의힘은 20·30을 위한 정책이라고 통찰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연령대와 상황을 좀 더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공감해주셨다”며 “또한, 청년세대의 대표적인 문제인 국민연금 개혁, 법정 청년연장 문제에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실질적인 실무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제에서 청년이 들러리가 아닌, 협상 테이블의 당당한 ‘실무 파트너’로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청년 집단, ‘실무적 주체’로 정의해야
필요할때만 찾는 청년 ‘토사구팽’ 아닌
정책결정 실질적 개입 통로 열어줘야
다수의 목소리 대변하는 역할 힘쓸 것**

◆필요할 때만 찾는 청년 ‘토사구팽’ 끝내야

송서울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청년들은 자산·고용 등에서 양극화를 겪으며 불안을 겪고 있고, 이는 청년 세대의 역량을 깎아 먹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일부 기대 대표된 목소리나 즉흥적인 여론에 기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의 정치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 세대부터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필요할 때만 청년을 호출하고 내버려두는 ‘토사구팽’을 끝내고,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앞으로의 행보를 두고 “앞으로도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내 목소리를 보태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해 이야기하는 역할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별한 권한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동료들과 함께 더 믿을 만한 사회,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며 “그리고 호남이 발전하는 것을 넘어 오래된 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고, 장차 우과 진영의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권영세(두번째 줄 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치에 청년이 외친다!’ 토론회에서 윤희숙(두번째 줄 왼쪽 두 번째) 전 여의도연구원장, 송서울 Team.Fe 대표(맨 앞줄 왼쪽 두 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메트로  한줄뉴스



▲야구대표팀 포수 최재훈, 캠프서 손가락 골절… 4주 진단
▲‘전 키움’ 푸이그, 미국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죄 판결
/사진 뉴시스

▲WBC 3연속 1차전 패배…‘8강 목표’ 류지현호, 체코와 첫판 필승 다짐
▲알나스르 호날두, 운영 불만에 사우디 떠나나 “여름 이적 가능성”

▲대한항공, 한전 3-1로 꺾고 ‘선두 탈환’…GS, 정관장 3-0 완파
▲NBA 샌안토니오, 댈러스 138-125 격파…캐슬 40점 트리플더블 달성